

노벨상 수상자와 함께하는

위대한 수업

GREAT MINDS Season3



조지프 스티글리츠
노벨경제학상
(2001)

시린 에바디
노벨평화상
(2003)

프랭크 윌첵
노벨물리학상
(2004)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노벨문학상
(2015)

폴 로머
노벨경제학상
(2018)

배리 마셜
노벨생리의학상
(2005)

다시보기는?
K-MOOC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kmooc.kr



행복한교육

10

vol.495 2023 OCTOBER



02 네 꿈을 펼쳐라

마산여중 영상제작반 동아리
영화로 풀어낸 환경보호 메시지 '가을이 오면'

06 에듀피플

이영호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역사적 진실 탐구로 '균형감' 있는
역사 이해 도울 것"

36 교육웹툰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실시합니다~

COVER STORY

홍천 원당초등학교(교장 함창숙)는 내 교장의 생태계를 관찰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비롯해 승마교실, 농촌유학 프로그램, 다채로운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학교의 노력으로 전교생 8명이었던 학교는 최근 22명으로 학생 수가 크게 늘었다. 사진은 방과후 난타수업을 마친 학생들과 진형석 강사(위 맨 왼쪽), 서중호 교무부장교사(위 맨 오른쪽)의 모습

발행일 2023년 10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편집인 대변인 박성민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김홍순
사무관 배선연
편집장 이순이
기 자 한주희, (객원)김혜진, 서지영, 이경화
사 진 김경수, 김성수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08 조양빌딩 본관 5층
(주)전우용사촌
웹 진 www.happyedu.moe.go.kr
제 보 eduzine21@gmail.com
전 화 02-2271-099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집

공교육을 세우다

- 11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 14 학교의 심장, 전문적 학습공동체
- 18 작지만 큰 학교, “여기는 강소학교입니다”
- 22 고교학점제, ‘우분투(UBUNTU)’를 만나다
- 26 학교-지역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
- 29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해외의 노력들
- 32 모든 학생의 의미있는 배움이 이뤄지는 깨어있는 교실을 위해



- 02 네 꿈을 펼쳐라
마산여중 영상제작반 동아리
영화로 풀어낸 환경보호 메시지 ‘가을이 오면’
- 06 에듀피플
이영호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역사적 진실 탐구로 ‘균형감’ 있는 역사 이해 도울 것”
- 36 교육웹툰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실시합니다~
- 38 교육자치시대
충청남도교육청
한글 해득-기초학력-학습부진-문해력 다 잡은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프로그램 ‘온(ON)시스템’
- 42 교육포커스
어린 미적 인간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 46 현장중계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 개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혁신 생태계 조성
- 50 진로직업인
조향사_센트위키 김혜은 대표
“상상 속 향기를 만들어 내는 매력에 푹 빠졌죠”
- 54 일상의 심포
마음을 비우며 걷는 문경새재 단풍 숲길
- 58 이야기 인문학
주시경과 제2의 한글 창제
- 60 교실혁명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의 실제
나와 너, 우리의 소셜미디어
- 64 예쁜 우리말
한글날, 짧은 생각



마산여중 영상제작반 동아리

영화로 풀어낸 환경보호 메시지 ‘가을이 오면’

마산여자중학교(교장 이영희) 학생들이 제작한 단편영화 ‘가을이 오면’은 기후 위기와 환경보호를 주제로, 사계절을 의인화한 봄(봄), 여름, 가을, 겨울이 주인공이다. 영화는 가을이가 갑자기 실종되면서 시작된다. 기후 위기로 사라진 가을이에 이어 봄(봄) 또한 사라져 갈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다 함께 환경보존을 위해 일상 속 실천을 통해 노력해 나간다는 이야기를 담은 ‘가을이 오면’ 속으로 들어가 보자.



2

시나리오부터 편집까지, 학생들이 직접 만든 영화

마산여중 영상제작반 학생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출연하고, 감독한 영화가 2023년 제18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BIKY)에서 상영되었다. 영화제에는 54개국에서 제작된 163편의 영화가 상영되었는데, ‘가을이 오면’은 7월 15일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관객들과 만났다.

지난해 5월경, 영상제작반 노현진 학생은 영화제 공모전 소식을 접하고 부원들에게 영화를 한번 제작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뜻을 함께한 동아리원들이 각자 시나리오를 썼고 내부에서 1순위로 ‘가을이 오면’이 선정되어 지난해 7월경 시나리오를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청소년 단편영화 부문’에 출품하게 됐다고 한다. ‘가을이 오면’ 시나리오가 영화제 사전제작 지원작에 당당히 선정되면서 영화 제작을 시작했고 영화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창원교육지원청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미스터리 환경영화 ‘가을이 오면’이 완성될 수 있었다.

마산여중 영상제작반은 미디어랩 독감경보 대표 정보경 영화감독의 지도를 받아 4년 동안 다양한 작품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그동안 마산여중 행복학교 홍보영상을 비롯해 제16회 경남교육영상공모대회 금상, 2021년 중당영화제 최우수상, 제18회 두드림 경남 청소년영화제 은상 수상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가을이 오면’에는 지난 4년간의 영화제작 노하우가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 1 마산여자중학교 학생들의 생태환경교육. 마산여중은 4년째 꾸준히 탄소중립, 생태전환교육 등을 해오고 있다.
- 2 ‘가을이 오면’ 영화제작 회의



3 '가을이 오면' 단편영화 포스터

45 마산여중과 마산회원구 회원동 일대에서 촬영된 영화제작 현장. 배우, 스태프로 인근 청소년 40여 명이 힘을 보탰다.

사계절 의인화, 기후 위기를 영화에 담다

마산여중 박영채 학생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영상제작반 노현진 학생이 감독을 맡았다. 시나리오를 다듬고 8~9개월에 걸쳐 콘티를 짜는가 하면, 마산제일여중, 무학여고, 진해세화여고 등 청소년 40여 명이 배우와 스태프로 참여했다. 3일간의 촬영은 학교 교실과 마산회원구 회원동 일대에서 이뤄졌는데, 강행군의 연속이었다고. 아침 일찍 시작한 촬영이 밤늦게까지 이어지고 더운 날씨까지 고충을 더했지만, 제작팀, 배우들 누구 하나 지친 내색을 하지 않고 서로 다독이면서 힘을 냈다고 한다. 한 번은 골목 신을 촬영할 때 촬영 허가증을 보자고 요구하는 동네 어르신이 있었으나, 대다수의 주민들은 큰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어 힘을 내 촬영에 임할 수 있었다고 한다.

“기후 위기로 여름과 겨울은 길어지고 있는데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있잖아요. 사계절을 마음껏 느낄 수 있던 때에 대한 아쉬움과 지금의 안타까운 상황을 사계절을 의인화해 우리가 봄, 가을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화예요.”

노현진 감독의 설명이다.

4년째 환경 융합 수업으로 감수성 키워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시작하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비전으로 학교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마산여중도 ‘행동하고 실천하는 생태 시민 양성을 위한 생태전환 교육 활성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 ‘미래세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후 환경문제 공동 대응’을 목표로 4년 전부터 환경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가을이 오면’ 시나리오에는 그간 선생님들의 꾸준한 가르침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녹아들어 학생들 스스로가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한다.

마산여중에서 환경을 주제로 ‘참-그린(CHARM-Green) 교과융합프로젝트 수업’을 해오고 있는 맹나경 교사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동아리와 예술활동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보면 뿌듯하다.”라며 “학생들이 재미있고 울림 있는 작



4

5

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프로에 버금가는 열정과 책임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마산여중은 ‘참-그린 환경데이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 선언, 참-그린 경매, 숲속 음악회, 줍깅 등 다채로운 교육활동을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참-그린 경매로 모은 수익금은 3년 동안 그린피스에 기부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생태시민으로서의 감수성을 키우고 있다.

노현진 학생(감독)은 “학교에서 환경에 관한 수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 자연스레 영화 주제를 환경 문제로 선정했다.”라며 “여름은 갈수록 더워지고, 비도 너무 많이 오고, 겨울이 되면 학교 인근 하천이 해마다 더 빨리 어는 것을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환경 위기를 느껴 그 경각심을 영화에 녹여냈다.”라고 작품에 관해 설명했다.

자발적 의지와 협력으로 영화를 만드는 아이들

마산여중 영상제작반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협력으로 운영하는 동아리로서 매년 학생들이 협의해 동아리 활동을 계획한다. 학생들은 1학기에 영상 제작 방법에 대해 배우고, 2학기에는 영상을 만드는데, 함께 몰입할 수 있는 주제로 각자 분야를 정해 제작활동을 해오고 있다. 영상제작반 학생들은 현재 ‘재난’과 ‘마산여중을 거쳐 간 사람들’이라는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②

이영호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역사적 진실 탐구로 ‘균형감’ 있는 역사 이해 도울 것”

2006년 출범한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시아 역사 문제와 독도에 대한 조사 및 연구로 정책개발을 수행하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오고 있다.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고구려연구재단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2020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이영호 이사장을 지난 9월 13일 만났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독도체험관 개관 이후

학생들의 역사 체험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 3년,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돼 온 역사 현안의 조사 및 연구를 통해 학계는 물론 정계, 언론, 교육계, 일반 시민 등으로부터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하고,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국내외에 확산 및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재단에서 추진해 온 주요 사업, 즉 역사적 진실 탐구는 학계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조사와 연구 활동을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역사 왜곡과 갈등의 이슈가 노출될 때마다 그 인식의 격차를 좁히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동북아역사재단 이영호 이사장은 2020년 말 부임 이후의 여정과 소회를 이렇게 소개했다. 그러면서 “부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오프라인 상의 여러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못내 아쉬웠다.”라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다. 하지만 “2006년 재단 설립 당시의 목표였던 ‘바른 역사 정립 및 공유를 통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화해, 번영 기반 조성’이라는 미션과 계속사업들은 여전히 충실히 수행되고 있다.”라는 부연 설명이다.

독도체험관 확장·이전, 다양해진 독도 역사교육

“그동안 재단에서 수행해 온 다양한 연구성과들은 한국어와 영문 편집본으로 각각 발간되어 축적되고 있습니다. 매달 두 차례 발간되는 <동북아 역사 리포트>, 또 동북아 역사 현안과 관련된 핵심 주제를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계간지 <동북아 역사 포커스> 등이 그 결과물입니다.”

이 이사장은 “재단의 다양한 연구성과 저작물들은 재단 웹사이트 및 디지털 역사자료 공유 플랫폼 ‘동북아역사넷’에 탑재된다.”라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면서 향후 미래세대가 동북아 역사 현안에 대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 등의 제작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귀띔했다.

특히 2022년 ‘독도체험관’의 영등포 타임스퀘어로의 확장·이전은 방문객 수의 폭발적인 증가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이전 이후 올 8월 말까지 독도체험관을 다녀간 방문객 수는 20만여 명. 2012년 9월 서대문에 개관한 후 10년 동안의 누적 방문객 수 28만 명과 확연히 비교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체험관이 새로 들어선 곳이 생활공간이고, 상업지구이다 보니 일반 시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쇼핑을 목적으로 외출했다가 아이들과 함께 독도 체험도 하고, 역사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는 건 무엇보다 보람을 느끼게 되는 성과였지요. 또 영등포라는 지역 특성 때문인지 외국인의 방문도 더 늘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독도체험관 개관 이후 학생들의 역사 체험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운영해 오고 있다. 학기 중에는 중고등학생 대상 자유

학기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유·초등부 대상 프로그램을 학교의 신청을 받아 수요자 맞춤형 교육 및 체험활동으로 운영한다. 이 이사장은 “현장 방문이 어려운 지역학교 대상으로는 온라인 실시간 교육과 찾아가는 독도교실도 운영한다.”라면서 “학교 현장의 독도 영토주권 의식 함양 교육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은 또 전국 시도교육청에 구축된 지역별 독도체험관과 연계하여 독도 역사교육의 질을 한층 더 높이고 있기도 하다.

‘1947,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를 가다’ 기획전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현재 독도의 역사와 관련한 의미 있는 전시도 진행 중이다. ‘1947,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를 가다’ 기획전이다. 이 전시는 2021년 한국산악회에서 동북아역사재단에 학술조사 관련 자료들을 기탁하면서 성사되었다. 1953년 3차 조사단에서 활동했던 김연덕 옹은 이번 전시 개막식에 직접 참석하여 의미를 더하였다. 전시는 1947년 8월 16일 첫 조사단 활동일을 기념하여 8월 16

일 개막하고, 10월 25일 ‘독도의 날’이 있는 10월 말까지 계속된다.

“이번 전시 자료들 속에는 그동안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미공개 문서들도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1906년 울도(울릉)군수 심홍택이 작성 보고한 정부 문서에 처음으로 ‘독도’라는 표기가 나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고요. 울도군수 심홍택은 당시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인을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 시마네현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강원도 관찰사에게 처음 보고한 인물입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리는 표목이 처음 세워진 것도 1947년 첫 학술조사단에 의해서다. 그해 8월 20일, 독도에 입도한 한국산악회 조사단은 독도에 ‘조선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독도’와 ‘울릉군 학술조사대 독도 탐사 기념’이라는 두 개의 영토 표목을 세웠다. 또 이 학술조사는 1947년 2월 수립된 과도정부 민정장관이었던 민족주의 사학자 안재홍이 후원했다는 문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첫 독도와의 해후는 부임 이듬해인 2021년이었어요. 그 후 해마다 다녀오면서 이번 9월 14일 방

문이 세 번째입니다. 직접 다녀온 후 독도는 어업 등 울릉도의 생활권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러일전쟁 때 일제가 동해에서의 해전을 준비하면서 독도를 전략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는 사실도 공부를 통해 알 수 있었어요. 이후 석도가 독도임을 증명하고,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관음도와 죽도의 관련성을 해명하는 자료 발굴과 해석이 중요함을 파악하게 되면서, 재단 차원에서 연구기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은 “이번 기획전시 공간인 독도체험관이 이전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으면서 아직은 홍보에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체험관의 지상 출입구에 미디어월 설치 등 대중의 인지도를 좀 더 높이면 역사교육의 효율성이 더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역사교육은 ‘장소성’을 찾아가는 작업이지요”

“역사교육을 흔히 ‘장소성’에 대한 이해로 정의하기도 하지요. ‘공간(Space)’이 있고, ‘인간의 삶’이 있는 곳이 곧 ‘장소(Place)’인데, 역사는 바로 그 ‘장소성(Placement)’을 찾아가는 작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기행만큼 효과가 좋은 역사교육은 또 없지요. 역사학자로서 앞으로 시간이 허락되면, 재단에서 일하느라 잠시 유예해 둔 동아시아 비교연구, 동아시아 속의 한국사, 국내의 역사기행 등 근대사 연구자로서 상호 소통의 장이었던 항구·개항장 등 ‘장소성’에 대한 역사 탐구를 계속해서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역사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역사에 대한 균형감 있는 이해”라고 설명하는 이 이사장은 “역사적 맥락에서 역사를 파악하려는 역사주의, 현재의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려는 현재주의가 조화롭게



3

균형을 잘 이루도록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9월 13일, 인터뷰를 하면서 이 이사장은 취재팀에게 몇 권의 책을 소개했다. <동아시아 상생과 소통의 한국학>,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 사신 북경에서 만나다>, <한월 사신 창화시문> 등이다. 이는 이 이사장이 10년 전, 인하대에서 강의하면서 추진한 대형 학술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몽골 등과의 역사적 관계를 ‘갈등과 대립’보다는 ‘소통과 상생’의 경험을 발굴하여 한국학의 보급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였다. <한월 사신 창화시문>에는 <지봉유설>을 쓴 이수광 선생이 북경에 사신으로 갔을 때, 현지 사람들과 시조를 읊으면서 교류한 내용이 담겨 있다. 역사 왜곡과 관련한 균형감 있는 정책 대응이 절실한 요즘, 이 이사장은 “재단에서도 조사와 연구를 기반으로 한 학술적 네트워크 형성과 이를 통한 지지 확보 등 국제협력과 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⑤



1

- 1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로 확장·이전된 독도체험관
- 2 '1947,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를 가다' 기획전
- 3 역사학자로서 '장소성'에 대한 역사 탐구를 이어가겠다는 이영호 이사장



2

공교육을 세우다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증가와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등 전반적인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음에도, 최근 6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하는 등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 저하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잡자는 교실을 깨우고, 모든 학생을 미래인재로 키우기 위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고하는 한편,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맞춤 교육을 실시하여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서는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살펴보고, 깨어있는 교실, 활기찬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특히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선생님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고교학점제 운영 노하우, 작지만 내실 있게 운영되는 소규모학교 운영사례, 기초학력 지도 사례, 그리고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해외의 노력들을 소개한다.

Special Theme

- 11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 14 학교의 심장, 전문적 학습공동체
- 18 작지만 큰 학교, “여기는 강소학교입니다”
- 22 고교학점제, ‘우분투(UBUNTU)’를 만나다
- 26 학교-지역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
- 29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해외의 노력들
- 32 모든 학생의 의미있는 배움이 이뤄지는 깨어있는 교실을 위해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우리 사회는 디지털 대전환, 초저출생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모든 학생을 미래 사회를 선도할 인재로 양성하는 일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별화된 맞춤 교육을 위한 공교육의 근본적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표준화, 획일화된 교육으로 교육격차는 심화하고,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증가와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등 전반적인 교

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음에도, 최근 6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하는 등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 저하 현상이 심화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행복감이 하락하고 있었으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고,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했었다.

이에 교육부는 모든 학생을 미래 사회의 인재로 키우기 위한 공교육 혁신을 위해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하여 지난 6월 21일 발표하였다.

그림 1 - 지방교육재정(조원) 추이('1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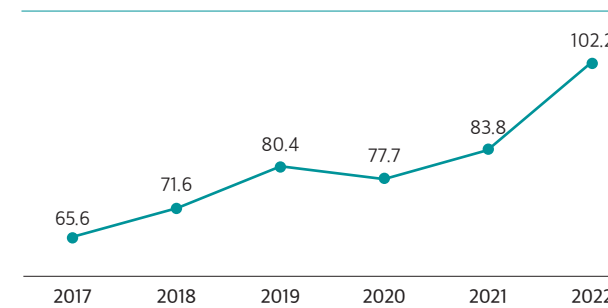


그림 2 - 학급당 학생 수(명) 추이('1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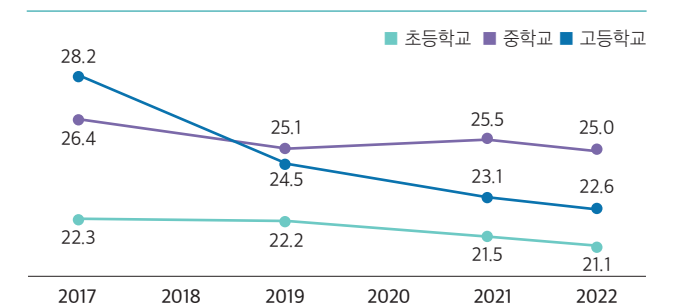


그림 3 - 중3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1수준) 비율 평균값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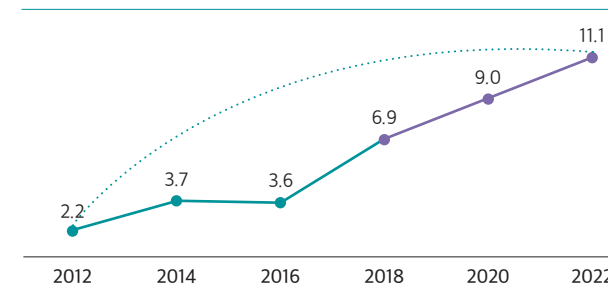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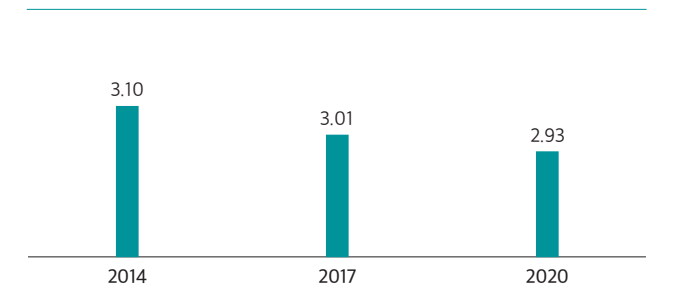


그림 4 - 학교생활만족도('14~'20, 여성가족부)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결정적인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국가책임 기초학력·기본인성 교육

정확한 학력 진단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사회적 역량과 심리·정서를 책임지고 지원한다.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결정적인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초등학교 3학년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이며, 중학교 1학년은 초등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워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학습과 성장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초3과 중1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들이 학년 초에 성취수준 진단을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하는 한편, 학업성취 수준 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규수업 및 방과후 지도, AI 맞춤형 학습, 학습관리 튜터링 등을 연계하여 제공한다. 또한 진단 결과에 따른 중점 지원 대상을 현재 5% 규모인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서 30% 수준인 중하위 수준 학생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자유학기를 내실화하여 진로적성에 대한 진단을 확대하고, 체계적 진로 체험 제공 등 학생 맞춤형 진로탐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초3과 중1 이외의 학년에서도 성취 수준에 기반한 개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학업 성취수준에 대한 진단과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대상을 2022년 기준 초6, 중3, 고2에서 2024년까지 초3에서 고2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며, 컴퓨터 적응형 평가(CAT)를 도입하여 보다 정밀한 수준의 진단을 지원한다.

아울러 학생 한 명 한 명의 사회, 정서적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의 학교 적응, 심리정서, 공동체 의식 등에 대한 사회·정서지표를 조사하여 학생의 성장 정도를 측정하며, 학생들의 심리 안정이나 회복적 생활교육 등의 프로그램 개발·보급하여 학교의 활용을 지원하고, 사회·정서적 역량 강화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 학생 사회·정서 지원법」을 제정한다. 아울러, 인성교육을 강화하며, 학교 체육활동을 상시화하여 다양한 수준별 활동으로 학생들의 체력과 신체 역량을 기르고 인성과 시민성을 함양한다. 또한 예술적 감수성을 토대로 공감·소통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1인 1특기 계발을 지원하고 학생 예술동아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반 교실수업 혁신 지원

AI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개별 학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실 수업의 혁신을 추진한다.

AI 디지털교과서를 2025년부터 도입하여 교과서를 통해 분석한 학습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학생들의 수준과 이해도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최적화된 맞춤형 학습콘텐츠로 학습하고, 교사는 데이터 기반으로 수업을 디자인하며, 학부모는 학생 활동 정보를 제공받아 자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전 다양한 에듀테크를 정규 수업과 늘봄학교, 방과후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고, 이를 확산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선도학교를 추진하고, 디지털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털 보조교사 배치를 확대한다.

AI 에듀테크 활용과 함께 학생들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여주는 교실 수업 혁신을 추진한다. 학생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함양을 위해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산하고, 학생 성장 과정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서·논술형 평가를 강화하며, 개별 학교의 수업·평가 운영 계획을 정보공시에 반영하는 등 수업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의 다양한 교육 선택기회 확대

공교육 내 학생별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기반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만들어 간다.

고교학점제를 보완하여 학교의 과목 개설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점제 운영을 개선한다. 학생이 지역과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와 공동 교육과정을 확대 구축하고, 시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단위학교를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대학과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2025년부터 일반고 전환 예정인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여, 공교육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 선발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의 교육력을 통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한 운영 내실화를 추진한다. 또한 미래 유망 성장 산업 등 산업 수요 변화에 대응한 전문 직업 인재 집중 육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2.0’을 추진하여 첨단분야 중심으로 신규 마이스터고를 지정하고,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과 개편 등을 지원하며, 모든 취업 단계에 걸쳐 디지털 기반 지원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학생의 교육과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이 지역과 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자율형공립고 2.0’의 추진을 통해 기존 자공고를 존치하되, 시도별 자율적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교사가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권을 회복하고, 수업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학교의 여건을 개선한다.

수업방해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교원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받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한 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보수·수당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하며, 교원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인사·보수·연수 등 교원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전체 교사 대상 연수 추진 및 교사들의 자율적 수업 연구 활성화 등 교사들의 수업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적극 경감한다. 단위 학교별 공통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의 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시도교육청과 협업하여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행정업무 효율화를 추진한다. 또한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학교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국가시책특교 사업의 운영방식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학생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건강한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사례

학교의 심장,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육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혼자가 아닌 공동체에 몸을 싣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밖에
없다.

왜 전문적 학습공동체인가

교사로서 잘 존재하기가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기본에 충실한 교육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인간이 지녀야 할 인간다움을 자문하고 그에 다가가려는 노력도 소중히 가꾸어가야 한다.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마음이 아픈 아이들, 학습이나 생활 면에서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향한 교사의 눈과 손과 마음은 분주할 수밖에 없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낼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한다. 교육과정이 바뀌고, 수업과 평가가 변화한다. 이 무수한 교육적 과제들을 어떻게 잘 수행해 나갈 것인가.

교사로서 잘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신의 삶 속에서 교사로서 행복하며, 이 시대의 교육의 방향을 스스로 만들고 참여하는 주체적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교사 혼자만의 힘으로는 요원하고 벅찬 일이다. 학교는 언제나 소용돌이치는 현실 세계의 맥락 위에서 이리저리 영향 받으며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혼자가 아닌 공동체에 몸을 싣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밖에 없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교사의 잘 존재함’에 기반하여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 학교를 만들어가는 데에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어떻게 만들어갈까

교육의 맥락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이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학습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대부분 교사들의 자발성에 의지하여 자의적으로 모인 이들이 높은 학습 의지를 가지고 운영해 간다. 한편,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지역마다 편차를 지니기는 하나 대체로 정책적, 제도적으로 교사들의 참여를 의무화하며 교사의 책무의 하나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의무적으로 자발성을 발휘하시오’라는 다소 모순된 지침을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다(선생님들 모두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고르세요!).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이 안 해도 되는 학습을 굳이 ‘자발적으로’ 모여 하는 위장된 자발성의 형태이기보다는 학교 조직 자체가 전문적 학습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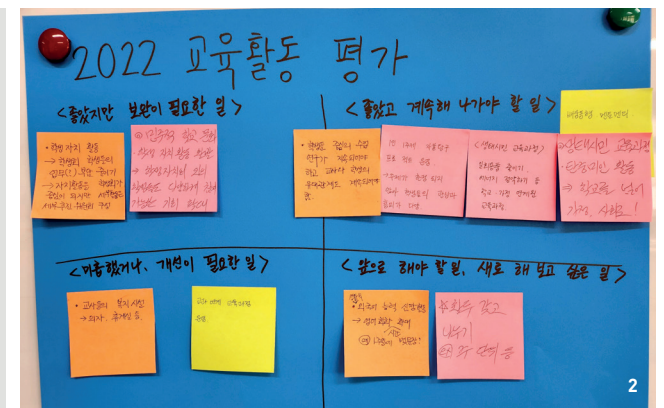
가 되어 교육을 실행하는 형태여야 한다. 어느 학교나 교사들은 매달 교직원회의를 열고, 교과협의회와 학년협의회를 하고, 수업공개협의회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모임들이 학교의 교육적 방향을 정하고 교육과정을 구안하며 학생들의 문제를 고민하는 실질적 연구와 실천과 성찰의 자리가 되기보다는 형식적이고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형식과 절차들만으로 이미 숨이 막히는데,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거기에 별도로 얹히는 달갑잖은 짐더미처럼 느껴진다. 안 그래도 하는 일이 산더미인데 전문적 학습공동체까지 하라니!

관건은 학교 조직 자체의 속성을 전환하여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만드는 데 있다. 학교의 각종 워크숍과 회의들을 들여다보고 의무적이거나 의미가 없는 일들은 걷어내고 전환하는 것이다. 교사들의 모임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학교의 교육적 고민을 담아 성찰하는 자리로 만들어 보려는 노력이 전문적 학습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핵심 요건이다.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한다는 식으로 서로의 수업을 의례적으로 공개하는 수업공개 행사를, 마음을 담아 서로의 수업을 보여주는 성찰의 자리로 바꾸는 일은 그간 많은 학교들이 노력해 온 전문적 학습공동체로의 전환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밤하늘의 별빛을 모아 은하수로 흐르기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수일여중(교장 고은희)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11년째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수일여중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여러 가지 실험과 고민을 거치며 변화해 왔다. 현재는 전 교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본과정 16시간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최대 14시간의

- 1 수일여중 전문적 학습공동체
2월 교육과정 워크숍
- 2 수일여중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육활동 평가회



함께 모인 자리에서 우리 학교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고 교육적 가치를 만들어가다 보면 동료 교사

대한 신뢰와 애정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학교의 실질적

교육력으로 이어진다.

저자나 주제와 관련하여 영감을 줄 수 있는 이를 강연 요청하여 저자와의 토론회를 갖는 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가르친다는 것>,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수업을 비우다 배움을 채우다> 등이 그러한 방식으로 함께 읽은 책들이다. 우정과 환대의 관계 만들기가 교육적 핵심 지향이었던 지난 해에는 <평화의 교육과정 섬김의 리더십>을 읽고, 저자인 전 덕양중 이준원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눔의 자리를 가졌다.

올해는 2월 워크숍에서 ‘삶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교육적 지향으로 설정하고, <보니샘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프로젝트 수업>을 전 교사가 읽고 저자를 초청하여 실습을 한 후, 학교 교사들과 교과 내·교과 간 연계로 삶 연계 교육과정을 구안하는 워크숍을 가졌다. 이렇게 구안된 내용들은 각 교과 및 학년 교육과정으로 반영되어 구체적인 수업으로 학생들과 만나고 있다.

교과협의회나 학년협의회 등은 공동의 교육과정과 수업을 나누는 자리로 실질적 의미를 갖도록 운영되고 있다. 학기 중간에 교육과정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학기말 교육과정을 구체화하는 협의를 갖는다. 또한 한 학기에 두 차례씩 수업공개 주간을 가진 후 모든 교과 및 학년들이 각자 모여 수업자가 제안한 성찰 주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보아주고 공동의 수업을 구안해 가는 자리를 갖는다.

학기 말에는 ‘수일여중 날개달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로부터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의견 및 제안을 수렴하고, 발제자를 정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갖는다. 교육과정이나 수업, 평가부터 공동체 생활 전반, 관계에 대한 성찰과 숙의의 과정을 거치고, 이를 공개적으로 수렴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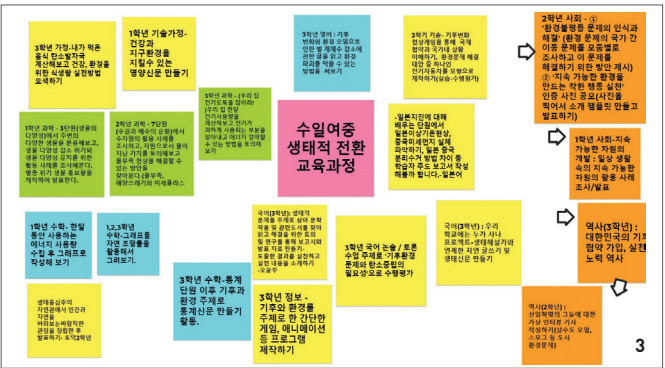
다음 학기의 학교 교육에 반영한다.

연말이 되면 교사들의 교육활동 나눔 축제를 갖고 우리 학교의 비전과 교육 활동들이 적절했는지, 잘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공유하며 다음 해의 교육 계획을 세우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 자리는 비판과 성찰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모두 고생했노라며 서로를 다독이는 자리이기도 하다. 주제 소모임들이 각자의 활동을 발표하고, 학년별 대표 수업 사례를 나누고, 우리 학교의 핵심 가치인 ‘민주시민교육’, ‘생태전환교육’,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를 숙의하며 학교의 미래를 함께 그린다. 이때 논의된 이야기들을 모아 <수일공감> 웹진으로 펴내고, 이를 새로 오는 교사들과 2월 워크숍에서 함께 읽어가며 수일여중의 전통을 잇고 새로움을 더한다. 수일여중의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여기는 가치는 교사들 하나하나의 목소리와 생각, 마음을 모으는 것이다. 교사인 우리들은 각각 독자적이고 고유한 별빛들이고,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각각의 별빛이 살아 있는 채로 거대한 하나의 은하수가 되어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무엇이 더 필요한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우리 학교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고 교육적 가치를 만들어가다 보면 동료 교사

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학교의 실질적 교육력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학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되기는 너무나 절실하고 중요하다.



3 수일여중 전문적 학습공동체 생태전환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4 수일여중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 공유 패들렛

매몰되지 않고 모두가 좋은 삶을 위한 교육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배움의 공간이 되려면, 교사를 교육의 주체로 세우는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변화와 사회 맥락적 전환이 필요하다. 잘 운영되어 학교 안과 밖을 두루 내다보는 힘을 갖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그러한 변화를 교사로부터 추동하는 힘을 갖게 되기도 할 것이다. 어둠 속을 더듬더듬 걷는 막막한 마음이지만, 교사들은 그렇게 교육의 주체 되기의 방법을, ‘교사로서 잘 존재함’의 방법을 기어이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

작지만 큰 학교, “여기는 강소학교입니다”

지역에는 신입생이 없어 폐교 위기를 겪는 학교들이 다수다. 하지만 이들 학교 중 지역 특색과 작은 학교만의 장점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면서 교육수요자로부터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얻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 규모는 작지만 내실 있는 학교를 꿈꾸는 원당초등학교를 소개한다.

교육공동체가 의기투합,

함께 성장하는 학교

강원도 홍천군에 자리 잡은 원당초등학교(교장 함창숙)는 강원도 소규모 학교 중에서도 작은 규모의 학교에 속한다. 지난해 전교생은 8명, 학급도 단 3개 학급뿐이었다. 산과 계곡,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아담하고 예쁜 학교지만 학령인구감소와 도심으로의 인구유출 등 대부분의 벽지학교가 겪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022년까지만 해도 통폐합 중점학교였던 시골의 작은 학교에 변화의 바람이 분 건 함창숙 교장이 부임하면서부터였다. 함 교장은 작지만 강한 학교,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들을 만나 건의사항을 듣고 소통하고 교육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고 말한다.

“부임 첫 주에 학부모들을 만났어요. 학부모들이 뼈곡히 적어서 가져온 건의사항을 모두 경청했어요. 도심의 학교와 비교해도 학업이 뒤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면 좋겠다 등 들어보니 학부모들의 건의내용이 합리적이고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상통하는 부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

확보 등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이후 함 교장을 주축으로 교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원당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확보 등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개인 시간을 활용해서 골짜기, 개울, 산 등 주변 환경을 탐색했고, 지자체·교육청 등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기획해 건의했다.

그렇게 탄생한 프로그램이 내 고장의 생태계를 관찰하는 ‘을수계곡 생태체험학습’,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반딧불이 체험학습’, 다양한 곤충과 식물을 직접 키워보는 ‘곤충생태프로그램’, 학교로 찾아오는 ‘승마교실’, 강원도-서울시교육청 MOU를 통한 거주비 지원 ‘농촌유학 프로그램’, 음악·미술·체육·과학·영어 등 아이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는 다채로운 방과후교실 프로그램 등이다.

<행복적립통장> 만들어주는 특색 프로그램,

전교생 8명에서 22명으로!

올해 1학기에 처음으로 진행했던 학교로 찾아오는 ‘승마교실’은 학교 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한 프로그램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VR(가상현실)을 이용한 가상 승마체험과 함께 운동장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전문가의 지도하에 전교생이 10차례에 걸쳐 실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진행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내년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방과후교실은 피아노·플루트·바이올린·난타 등의 예술/음악 프로그램, 융합과학·창의교실·생활과학 등 과학/사고력 프로그램, 독서·명상·1박2일



- 1 다양한 문화체험이 있어 학교생활이 즐거운 아이들
- 2 3학년 교실. 학생 수가 적어 선생님은 학생들의 특성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

영어캠프 등 잠재력과 두뇌를 깨우는 프로그램, 그리고 뉴스포츠를 필두로 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까지 다채롭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모든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은 학생 부담금이 없고, 저학년/고학년으로 구분해 전교생이 참여하는 점도 작은 학교여서 가능한 원당초만의 장점이다.

아울러 학기당 3차에 걸쳐서 ‘학교장허가 교류학습’ 신청학생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학적은 기존 학교에 두고 3~4주의 기간 동안 원당초에 와서 자연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 같은 노력들이 쌓이면서 지난해 8명이었던 전교생은 1년 사이에 16명으로 늘었고, 올해 2학기에는 추가로 6명이 더 전학을 와서 22명, 총 5학급으로 늘어났다. 그러면서 기존 3명이었던 교사도 총원하여 기간제교사를 포함해 교원 수를 6명으로 보강한 상황이다.

올해 1학기에 ‘학교장허가 교류학습’으로 원당초에 왔다가 2학기에 전학을 온 쌍둥이 형제 박승준·박승현 학생(2학년)은 “경기도 분당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반에 24명이나 있어서 수업시간에도 많이 시끄러웠다. 여기 오니까 반 친구들이 6명이고 수업 시간에도 조용해서 집중이 잘된다. 그리고 도시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잘 안 갔는데 여기서 자주 체험학습을 간다.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서 학교에 오는 게 너무 기대되고 즐겁다.”라면서 학교 생활에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을수계곡, 백두대간 트래킹, 반딧불이 체험, 춘천 레고랜드, 1박2일 영어캠프 등 실제로 원당초에선 거의 매달 현장체험학습이 진행된다. 도시에서 학교를 다녔다면 체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하다는 점도 학생 수 증가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교육공동체협의회·교육나눔교실·문화체험 등 소통하는 학교

원당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학부모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학교이다. 교육의 방향성을 학부모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 교육공동체협의회를 만들어 학기별로 모임을 하고 있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학부모와 함께 논의하고 이끌어가면서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융합하는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게 함 교장의 말이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학부모회에서 운영하는 교육나눔교실도 운영하고 있어요. 학부모의 재능기부로 성품, 명상, 요가, 미술, 독서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고 있어요. 교내 행사를 비롯해 학부모 참여가 많다 보니 처음에는 참여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교육나눔교실은 학교 인근에 위치한 내면 도서관에서 진행되는데 생업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할 만큼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원당초의 학부모회 활동은 단순히 재능기부의 기능을 넘어 현지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원주민과 타지에서 농촌 유학 등으로 이주해 온 이주민을 연결해 주는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 34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려 특색있는 체험학습을 하는 원당초 반딧불이 체험학습(위), 을수계곡 생태체험학습(아래) 사진제공 = 원당초등학교
- 5 원당초는 교육공동체 간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다. 방과후 학부모 난타교실
- 6 방과후교실은 학생 부담금이 없으며 전교생이 참여한다.



학교는 이렇게 연대감을 형성한 학부모들과 지난해에는 학교 텃밭에서 키운 배추로 김장체험, 화전만들기 등의 활동도 진행했다. 올해 10월에는 학부모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영월 단종유배지에 갈 계획인데 같은 날 학생들은 속초 박물관·대관람차·메이즈 문화체험 등이 계획되어 있다.

2021년 1학기에 ‘학교장허가 교원교류’ 프로그램으로 와서 햇수로 3년째 아이를 원당초에 보내고 있는 정현아 학부모회 회장은 “당시는 코로나19가 극심해서 온라인으로 수업하거나 교실수업을 해도 친구들과의 작은 접촉마저 제재받던 시기였다. 대도시에서의 학교의 기능에 회의를 느끼고 이곳에 왔는데 시골학교지만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서 놀랐다. 프로그램의 내용도 좋고 다양한 체험도 가능했다. 무엇보다 교장선생님과 언제든 소통할 수 있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라는 점에서 참 좋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올해 1학기에 이주해 온 또 다른 학부모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생

들의 특성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 교육공동체협의회에서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것도 만족하고, 학부모회 역시 융합이 정말 잘 되어있어서 아무리 일이 바빠도 서로서로 도와주고 챙겨주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라면서 2학기부터 교육나눔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 줄 계획이라고 덧붙여 말하기도 했다.

원당초는 소규모 학생들이 자연과 가깝게 생활하면서 곤충, 식물, 동물, 꽃, 나무 등과 숨을 쉬듯 대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학교다. 강원도의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학습과 이색적인 프로그램 운영도 강점이다. 하지만 원당초가 무엇보다 주목한 것은 ‘소통’이었다.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학교와 지역공동체 간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로 성장하려는 노력, 바로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서 학교성장의 동력이 됐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

고교학점제, ‘우분투(UBUNTU)’를 만나다



1 학교 입구에 있는 우분투 현판

남 아프리카 반투어에 속하는 ‘우분투(UBUNTU)’는 ‘우리가 있어 내가 있다’라는 뜻으로 ‘나와 타자 또는 나와 세계와의 연결과 협력’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2022학년도부터 목포덕인고등학교¹는 ‘우분투’라는 가치를 교육공동체와 함께 공유하며 지향해야 할 교육 방향으로 설정하고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부터 ‘우분투’라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와 고교학점제의 연결성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우분투가 지향하는 ‘타자성’ 그리고 ‘연결’, ‘협력’의 키워드는 고교학점제의 추진 방향과 결을 같

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목포덕인고는 이러한 우분투 정신을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을 △배움이 삶으로 연결되는 학교(배움과 진로의 연계, 인성교육), △교육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다채로운 교육과정 운영), △협력과 포용이 이루어지는 학교(교육공동체의 협력, 교사-학생-학부모 협력)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움이 삶으로 연결되는 학교

요즘 교육 현장에는 ‘학습된 무력감’을 지닌 학습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중학교 때부터 겪어온 경쟁과 대입을 앞두고 직면하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인식은 학생들이 더 나아가는 원동력을 잃게 하는 듯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지금 학생이 하는 일’ 즉 배움이 자신을 비롯한 타인의 삶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연결점을 제공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목포덕인고는 ‘배움을 넘어 삶으로’라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교과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는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을 통해 실질적인 배움과 실천이 일어나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을 구안하여 적용하고 있다. 특히 전 교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화주제탐구활동’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젝트이다. 또한 각 교과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어과의 ‘글로벌 이슈 말하기 대회’, 수학과와 ‘수학 창의 마당(수학적 구조물 만들기)’, 사회과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과학과의 ‘융합 과학탐구 프로젝트’는 교과 지식을 삶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기점이 되어주고 있다.

교육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흥미와 꿈에 맞는 선택을 지원하고 존중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학생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목포덕인고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는 학교이다. 먼저 ‘교과와 연계 창체 활동’으로 멘토/멘티 활동, 교육정책 제안 한마당을 실시하고 있고 실생활의 문제를 공학적으로 해결하는 교내 ‘해커톤 캠프’를 진행했다. 또한 50여 개의 진로 연계 정규/자율 동아리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두고 고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규교육과정 외의 방과후 PBL 활동을 진행하여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심화하여 탐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에 대한 결과와 자신의 성장을 공유하는 ‘학술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에 의미를 부여하고 공유하여 도전을 주고받는 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협력과 포용이 이루어지는 학교

고교학점제는 학교 현장에서는 혁신과도 같은 정책이다. 상대평가를 성취평가제로 바꾸고, 학생

의 선택에 따라 수업의 존폐가 결정되기도 한다. 또한 평가의 변화에 따라 함께 바뀌는 수업의 모습 역시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학교에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수용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앞으로 나아갈 ‘비전’과 지금 처한 ‘현실’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협력’을 해야 한다.

목포덕인고는 이러한 협력을 위해서 특별한 교육과정 워크숍을 운영하였다. ‘집단지성을 통한 우리 안의 현안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워크숍은 모든 교사가 ‘잼보드’ 에듀테크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교에서 가장 협의가 필요한 현안 과제를 제시하고 모든 교사가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교과별 전문적 학습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성취평가제를 위한 평가도구 개발’을 주제로 과목별 속의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워크숍을 통해 ‘학교의 비전’과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주인의식을 확인하고 또 키워갈 수 있었으며 협력과 협의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교육의 궁극적인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학교 공간혁신을 통해서 함께 ‘우분투’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크게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2 집단지성의 힘으로 현안을 해결하고자 모인 교육과정 워크숍

¹ 학교는 2022학년도부터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해야 하는 핵심 가치를 ‘우분투(UBUNTU)’로 설정하여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있다. 2022학년도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사업 일반고 우수프로그램 운영학교로 선정되어 교육부 표창을 받았다.

조성 사업’과 ‘교과, 창체 연계 유희공간 혁신’으로 이루어지는 공간혁신 중 후자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교육과정 속 협력을 통해 이루어 가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벽과 학교 울타리에 ‘우분투’적 의미를 담은 활동 결과물을 전시하고 복도의 기능만을 수행했던 2층과 3층의 ‘홀’에 ‘우분투 음악홀’과 ‘우분투 갤러리’를 만들어 ‘함께’의 가치와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함께 나아가는 법 알려주는 ‘우분투 교육과정’

철학이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학교에 안겨준 성과는 ‘학생의 변화’이다. 목포덕인고는 목포 지역 안에서도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의 중심’이 있는 학교로 평가받는 학교이다. 2학년 재학 중인 송○○ 학생은 학교에 다니며 느낀 점을 이렇게 밝혔다.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앞만 보고 열심히 공부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덕인고에 입학하였습니다. 하지만 목포덕인고등학교는 앞만 보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며 함께 나아가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해야 해결할 수 있는 과제와 프로젝트 수업 방식은 해내면 해낼수록 실력과 인성이 함께 성장하는 느낌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통해 배운 우분투 정신이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초가 되는 삶의 방향성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시기일 수 있는 대입 전 고교생활 속에서 함께 나아가는 법을 알려주었다는 학생의 소감은 우리 학교가 학생들에게 궁극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임이 분명하다.



3 교과 창체 연계 유희공간 혁신(우분투 음악홀)

나만의 교육과정 설계, 학습된 무기력을 깨다!

2020년 9월에 진행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학생 간담회에서 “성적이 뛰어나지 못한 친구들도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성공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안타깝게도 이 의견 속에는 ‘성적이 뛰어나지 못한 친구들은 성공 경험을 갖기 어렵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다. 대입을 준비하는 일반고에서는 ‘성공 경험’을 느끼지 못하고 진학과 진로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린 ‘학습된 무기력’을 앓는 학생들이 많다.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성취평가제’, ‘진로와 연계된 과목의 다양화’, ‘학생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이상적인 방향성은 ‘수능’, ‘대입’, ‘성적 변별’, ‘의·치·한·약·수 지원 증가’라는 현실 앞에서 교육자본이 뛰어난 학생들의 점유물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교육공동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교육과정을 주체적으로 설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기 초

학년별 ‘교육과정 박람회’를 실시하였다. 교육과정 부장을 중심으로 우리 학교가 운영하는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의 특징을 설명하고 대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선택’과 ‘경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하였고 학생들이 자신의 교육과정을 주체적으로 디자인해 갈 수 있도록 책자를 통해 안내하였다. 또한 교과별로 과목의 성취수준과 지난해 선배들이 수행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전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과 특성에 맞게 교과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목포덕인고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학업역량의 뒤처짐은 교실 속 소외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래별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정착시켜 또래교수를 통해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채워가고 있고, 교과별 사교육 절감형 특강을 운영하여 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공교육 현장은 같은 나이의 학생들이 같은 환경을 공유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현실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속도는 학생들의 가정환경과 살아온 과정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속도를 맞춰주



4 교내 해커톤 캠프

는 일, 무엇보다 친절하게 학생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일은 학교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학점제, 공동체 관계·자존감 회복하는 과정으로

‘교육백년지대계’, 교육은 백 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말처럼 공교육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무너져 가는 요즘 공교육 현실은 학교와 교사가 나아가는 길에 대해 염려와 고민을 더해주는 것만 같다. 목포덕인고는 무너진 공교육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관계의 회복’을 제안한다. 공교육은 현재 ‘관계의 부재’에 직면하고 있다. 학교에서 존재했던 인간적인 교류는 줄어들고 학교를 대입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고교학점제 역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대입 맞춤형 고교학점제’가 돼 버리지는 않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교육공동체의 자존감은 더욱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무너진 공동체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다. 목포덕인고가 추구하는 ‘우분투-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말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면 이렇다.

‘학생이 있기에 우리가 있다.’
‘선생님이 있기에 우리가 있다.’
‘학교가 있기에 우리가 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타인에게서 온다는 ‘타자성’,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타인에게 ‘기여’하는 일의 가치를 느껴갈 때 비로소 무너진 교육공동체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가 외형적인 화려함보다 무너져 가는 교육공동체의 관계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교육과정이 되기를 소망한다. ㉠

학교-지역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

개인별 학습 부진 원인 파악... 학습 및 심리·정서적 지원까지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비교한 결과 국어, 영어, 수학 등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중3 국어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7년 2.6%에서 2022년 11.3%로 4배 가까이 늘어났고, 수학은 2017년 7.1%에서 2022년 13.2%까지 증가했다. 영어는 2017년 3.2%에서 2022년 8.8%까지 뛰었다. 고2 영어는 2017년 4.1%에서 2022년 9.3%로 2배 이상 높아졌으며 수학은 2017년 9.9%에서 2022년 15%에 달했다. 고2 국어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7년 5.0%에서 2022년 8.0%로 증가하였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기초학력 저하 문제는 초등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초등학교도 중고등학교와 비슷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학습 부진이 시작되는 초동시기에 더 많은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기서는 문경 모전초등학교와 대전 자양초등학교 기초학력 지도 사례를 소개한다.

경북 문경시 모전초등학교 - 심리치료는 학교 밖 제도로 적극 보완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모전초등학교(교장 김은자)는 전교생이 1,000여 명이 넘고 교원이 60여 명이 넘는 대규모학교이다. 이 학교는 국어, 수학 등 저학년의 기초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담임교사와 기초학력 전담교사의 협력수업을 주 18시간 진행하고 있다. 1수업 2교사제는 담임교사가 수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 협력교사는 교실을 순회하다가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이 수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곁에서 문제의 뜻을 반복해서 말해주거나 한글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밀착해서 학습지원을 하고 있다.

이수민 기초학력 담당교사는 “문경교육지원청에 맞춤형 컨설팅을 요청해 똑똑수학탐험대 활용법에 대한 연수를 받고 1학년 수학수업에 적용해 보았는데 학생들이 교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흥미가

생기면서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라고 밝혔다. 에듀테크 교구는 교과 수업뿐 아니라 가정 내 학습이나 학생 스스로 자신 수준을 진단하고 보충학습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수업 내 지원은 학기 초에 2학년부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에 따라 이뤄진다. 특히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거나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 밖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2명의 학생이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받고 있다. 문경교육지원청 기초학력 거점지원센터 권묘정 상담교사는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통해 주 1회 90분씩 학교로 찾아가 학생들과 1:1 학습지도와 심리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자존감 향상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연 1회 해피캠프, 외부



1 문경교육지원청 기초학력 컨설팅



2 모전초 방과후 우리반 희망 사다리 교실

기관과 연계한 치료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전초는 학습 지원 대상을 위한 수업 내 개인별 맞춤 지원 외에도 방과후에 이뤄지는 기초학력오름 교실 3개 반과 27개의 ‘우리반 희망 사다리 교실’을 통해 전교생의 기초학력 격차를 줄이고 있다.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우리반 희망 사다리 교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발생한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

해 학생과 교사가 자발적으로 방과후나 방학에 운영하는 교과 보충프로그램이다. 이수민 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초학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도 정비가 촘촘히 이뤄지고 있다. 학습 부진 학생의 개인별 맞춤 지원이 강화되면서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를 신청해 수업 내 지원 등 다인수 학급이나 과밀 학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자양초등학교 - 개인별 출발점 진단 후 맞춤 지원

대전광역시 자양초등학교(교장 임강혁)는 전체 학생 수가 13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이다. 인구 유입률이 낮은 구도심에 자리하고 있다. 자양초 교사들은 모두가 두드림, 한무릎, 찬찬협력강사, 기초학력 튜터, 학생 특성 이해검사를 통한 맞춤형 교육 등 기존의 기초학력 신장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애써왔다. 이를 토대로 올해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정 정책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체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인 ‘모아모아 JUMP-UP 프로그램’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역

량을 모아 학생의 출발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협력 수업, 교수 학습 자료의 매칭, 활용하며 함께 배우는 영역, 단계별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아모아’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다는 의미이고, ‘JUMP-UP(점프업)’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도약을 의미한다. J(Join-UP)는 담임교사의 수업에 협력교사와 협력강사 및 공부 친구가 함께 참여해 활동하면서 교실 내에서 학습 지원을 보강하는 프로그램이다. U(Unite-UP)는 학생, 교사, 전문가를 상호 연결하는 학습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지원을 한다는

뜻이다. M(Match-UP)은 진단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교재, 평가도구 및 온라인 학습 플랫폼 등을 학생 특성에 맞춰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P(Peer-UP)는 학습 지원을 위해 학생별 부진 영역과 단계에 따라 두드림학교, 한무릎공부방 및 기초학력캠프를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자양초에는 기초협력강사 2명, 찬찬협력강사 1명 등 총 3명의 협력강사가 모든 학급의 담임 수업에 함께 참여해 국어, 수학, 과학 등 주요 교과와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시민우 연구부장교사는 “연필을 잡는 법이 서툰 1학년 학생이 찬찬선생님 덕분에 한글 쓰기가 쉬워졌다고 말하고, 큰 숫자 연산이 취약했던 고학년 학생이 협력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덧셈, 뺄셈이 예전보다 수월해졌다고 말한다.”라며 “성과에 힘입어 현재 학급당 주 2~3시간씩 이뤄지고 있는 협력수업을 앞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점프업 프로그램은 가장 먼저 학년, 영역별 지필 검사, 교사의 관찰 기록 및 교사 간 이력 공유로 출발점을 진단하는 ‘자양 3-STEP 출발점 진단체계’를 활용한다. ‘자양 3-STEP 출발점 진단체계’

는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활용한 학생 진단과 담임교사의 집중관찰을 통해 개별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고 전년도 담임교사와 성장 이력을 공유함으로써 학생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초학력은 학생의 인지적 영역은 물론 정서, 사회적 영역 등 여러 부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자양초는 교사, 관리자, 상담사, 복지사 등 전 교직원이 참여하는 자양점프업 TF를 구성해 수시로 모여 머리를 맞댄다. 교내 환경, 교육 프로그램, 외부 기관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늘고 민하며 지원의 사각지대에 학생이 놓이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학생별로 맞춤형 교재를 매칭하기 위해 교재 76종의 특성을 분석하고, 모든 학급에 기초학력에 관한 학습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서, 교재, 보드게임 등을 비치한 점프업존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자양초는 학습 지원뿐 아니라 원예 치유, 푸드 테라피 등 학생들의 정서·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자녀 학습지도 방법과 자녀 대화법 등에 대한 연수도 계획하고 있다. ②



3 자양초 점프업존



4 자양초 개인별 출발점 진단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해외의 노력들

주요 기초학력 영역과 시기의 중요성

기초적인 학력은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읽기와 쓰기, 셈하기 등의 역량이 바탕이다. 쉽게 말해 국어와 수학을 잘해야 다른 과목, 예를 들어 사회나 과학 등도 잘할 수가 있다. 간혹 해외에서 공부하다 귀국한 초중등 학생들이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사회, 역사, 과학 등의 여타 과목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언어능력과 수학적 역량이 기초학력 증진의 핵심이다.

기초학력 저하 문제는 조기에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점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지만, 유아 단계에서부터 아동들의 언어와 수리역량이 발달하게 된다. 과거 미국에서 열세 살 소녀가 태어난 후 계속 집안에만 갇힌 채 외부와 고립되어 자란 적이 있었다. 구출된 이후 교육을 시켰지만, 문법에 맞는 문장을 구사하지 못하고 결국 어려운 생을 겪게 되었다. 한편 6살 때까지 집안에서 고립된 채 전혀 외부인과 교류하지 못하던 아동은 구출된 이후 교육을 받게 되자 1년 만에 1,500여 개의 단어를 익히고 언어역량이 일정 정도 성장하게 된 사례가 있다. 즉, 유아 시기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언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10대의 나이로 접어들면 사실상 기초적인 언어역량을 발전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된다.

유아들은 타고난 확률가이자 수학자라는 연구도 존재하는데, 유아 시기에 아동들은 연속성의 개념과 확률의 개념도 타고난다. 유아 시기에 미적분을 가르칠 수는 없겠지만, 사물의 숫자세기부터 주변 현상의 수학적(기하학적) 현상(예를 들어 촛불에서 손이 멀어지면 손의 그림자가 작아지는 현상 등)을 보여주면서 영유아들의 수학적 경험을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타고난 언어와 수리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유아 때부터의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 행정에서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대부분 초중등시기에 맞추어져 있다.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중·고등학교 시기에 추진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그리고 특히 영유아 시기부터 아이들의 언어발달과 수리적 사고능력의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미국의 경우는 많이 알려진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영아시기부터 취약계층 자녀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Early HEAD START)도 시행 중이다. 취약계층과 소수민족 자녀들에게 영유아 시기부터 다양한 지원을 하는 정책이다. 간호사가 가정 파트너십을 통해서 의료전문가가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서 영유아들의 건강과 발달 상태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건강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 방문 독서지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아동들의 언어발달, 학습성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본적인 아동의 건강과 발달상태가 기초학력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고 궁금할지도 모르겠다. 뇌과학 연구에 의하면 1.4킬로그램의 뇌는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의 20~25%를 소모한다. 아동 시기부터 충분한 영양분이 뇌에 공급되지 않으면 건강한 두뇌발달이 이루어지는 데 제한적일 수 있다.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서는 아이들의 충분한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건강의 증진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핵심 지식 운동

한편, 유·초·중등 단계에서 기초학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핵심 지식 운동(Core Knowledge Movement)이 전개되고 있다(<https://www.coreknowledge.org/>). 핵심 지식 운동은 미국의 학교에서 지나치게 지식을 등한시하는 편향이 기초학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시행되는 운동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학생 중심의 개별화 교육과정이 강조되고 지식은 필요하지 않다는 담론이 퍼지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중요한 지식 습득을 간과

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보면 대인관계능력, 협동능력, 개인의 자율적 학습능력, 기술과 여러 자료를 연계하고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등이 강조된다. 이는 대부분 비인지(Non-Cognitive)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비인지 역량증진 교육과정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휘력, 수학지식, 역사 사실에 대한 지식 등이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너무 많은 지식을 이해 없이 암기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주요한 지식에 대한 사례에 바탕을 둔 이해를 통한 습득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연계와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각과 창의성의 발현은 어려운 것이다. 영유아 시기부터 초중등학교 시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언어와 수학 사례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하고 더 깊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핵심 지식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최근 창의융합적 사고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비인지적 역량만 강조하는 교육 담론과 유아 시기에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놀이를 통한 지식과 앎의 증진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놀이에서 머무르는 경향이 존재하기도 한다. 비인지적 역량의 증진도 중요하겠지만, 인지 역량에 대한 강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주기적 보편적 점검 시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상당수는 학습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 평가, 혹은 테스트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시험이 한국에서는 많이 사라졌다.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그동안 자유학년제를 시행하면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의 시험을 역시 보지 않았다. 물론, 수행평가는 이루어지고는 있을 것이며 개별 평가는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지나친 경쟁 분위기에서 시험경쟁이 과열되면서 초등학교 단계에서 지필시험을 없애는 것도 일정 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 적극적 평가가 부재하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 진척 상황에 대해서 교사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 성적을 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아이들의 기초학력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한 평가 혹은 시험은 중요하다. 보편적 점검 시험, 즉, 누구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점검 시험을 통해서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현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러한 보편적 검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사는 성적을 산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 대상을 파악하고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조기에 집중적으로 수업 시간에 개별화 수업 지원, 방과 후교육 지원 등을 통해서 기초학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필수적이다.

직접 교수와 훈련과 연습, 1만 시간의 법칙

특히 초·중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의 토론과 다양한 수행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학교에서 배워야 할 핵심적인 지식에 대해 교사가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시간이 감소한다면, 이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지적 성장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기초학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학교에서 상호토론식 수업도 일정 정도 해야겠지만, 교사 중심의 직접 교수(Direct Instruction)와 아이들의 훈련과 연습

시간도 가지도록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연습시킬 필요가 있다. (극단적인) 발견학습법에 근거한 교육과정은 교사가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교육에 개입하지 않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이치를 발견해 나가는 것을 강조한다. 발견주의 학습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진보주의 교육의 극단적 형태인데, 현실을 보면 학교의 각 교과 수업 시간은 45분 혹은 50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초등학교 시기에 학생들끼리 스스로 그룹토론을 통해서 이치를 습득하게 만드는 교수법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 학생들이 시간만 낭비하고 앎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1만 시간의 법칙으로 유명한 에릭슨 교수는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에서 훈련과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수학의 예를 들면, 교사가 문제를 푸는 법을 잘 설명해주고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학생들이 교사의 시범을 통해서 잘 학습하고 스스로 문제를 지속적으로 풀고 연습해 나가는 교수법, 일종의 직접교수법을 강조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점프수학이라는 수학교육 운동이 존재한다. 교사가 학습 내용을 세분화해서 단계별로 정확히 직접적으로 설명하며 가르치며 아이들이 푸는 상황을 교사가 평가하고 곧장 피드백함으로써 수학성취도를 증진시키는 교수법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그리고 많은 수학연습문제를 풀고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하고 발표하게 한다. 기초학력을 증진시키는 데 왕도는 없다.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아이들이 이해하는지 문제를 풀게 하고 점검하고 꾸준한 연습을 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②

※ 참고문헌은 웹진(www.happyedu.moe.go.kr)에서 확인하세요.

모든 학생의 의미있는 배움이 이뤄지는 깨어있는 교실을 위해¹

‘이 배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배움이 왜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었을
때 학습동기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교사가 학생의 관심과 흥미, 이전의
경험 등 삶의 맥락과 배움을
연결시켜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공교육을 위기로 느낄 만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OECD 미래학교 시나리오 중의 하나인 탈학교 시나리오를 떠올리게 된다. 당시에는 학교 없는 미래를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학교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교육의 위기에 대해 말하고 있다. 공교육이 위기에 처하게 된 수많은 이유가 있고 다양한 해법이 존재하지만, 학교는 교육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학생의 배움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점을 상기해보는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실과 수업이 되살리는 것이 깨어있는 교실을 만들고 공교육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중심 수업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렇다면 학생 중심 수업은 무엇을 의미할까? 학생 중심 수업은 학생의 배움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을 의미하며, 배움의 측면에서 학생에게 의미있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학생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집단으로서의 학생 전체를 말하는 것일까?

<평균의 종말>을 집필한 토드 로즈(Todd Rose)는 산업혁명 이후 표준화교육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평균주의가 지배했던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간 공교육은 특정 연령의 평균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개개인의 관심과 흥미, 특성과 삶의 맥락은 배제한 채 수업을 해왔다. 그는 현재의 학년이나 연령에 고정된 교육과정을 비판하면서 개인별 능력과 속도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을 새 시대의 교육모델로 제시하였다.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은 학생 중심 수업을 중시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하는 수업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미래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¹ 이 글은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도전: 보편적 학습설계 수업(조윤정 외, 2021)』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개별맞춤형 교육이라는 점도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 있다.

학생들이 잠자는 교실, 흥미와 생기를 잃어버린 교실이 된 것은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더 이상 교실에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 개개인의 삶의 맥락과 경험에 따라 각자에게 의미있는 배움은 각각 다르게 해석되므로 모든 학생에게 의미있는 배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을 고려한 수업설계가 필요하다.

보편적 학습설계의 개념

그렇다면 어떻게 개별 학생들의 학습준비도, 관심사와 흥미, 학습에 있어서의 강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개별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보편적 학습설계 수업을 제시할 수 있다. 보편적 학습설계 수업은 어느 누구도 교실에서 배제되거나 교사의 관심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학생들의 능력의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여, 배움이 협력적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는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이다. 보편적 학습설계 수업은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현재 수준에서부터 학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 학습방법, 시기, 속도, 순서 등에 있어서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고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학습경로를 선택하여 자신의 잠재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설계이다.

교사는 지식과 정보의 전달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생의 삶에서 이 배움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줄 수 있는 맥락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보편적 학습설계 수업의 3가지 원리

모든 학생에게 적합하면서 유연한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편적 학습설계 수업의 3가지 원리, 즉 참여의 원리, 표상의 원리, 표현의 원리를 통해서 가능하다.

첫째 참여의 원리는 ‘어떻게 모든 학습자들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학습자에게 왜 학습하는지에 대해 동기를 유발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학생은 엄격한 규칙을 따를 때 학습이 잘 이루어지는 반면, 어떤 학생은 보다 자발적인 것을 선호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할 때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학습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효율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도전과 지원이 적절히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동이 너무 어렵다면, 학생들이 좌절할 수 있고, 이와는 반대로 너무 쉽다면 학생들은 지루해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적합한 수준의 일을 할 때 동기가 극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렵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의 도전, 즉 골디락스 법칙

(Goldilocks Rule)²이다. 지나치게 어려워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쉬워서도 안 되며 일의 난이도와 자신의 능력이 적절한 접점에서 만나야 한다. 이때 어떤 일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게 되고 재미를 느끼게 된다. 도전과 지원이 적절히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료들과의 협력 기회를 창출하고 특정 과제에 대해 대안적 도구와 스캐폴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표상의 원리는 ‘어떻게 학습자들이 습득해야 할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학습하는 내용에 접근할 때 텍스트, 실물, 동영상, 그림 등 다양한 선택권을 학습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인식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모든 학습자 혹은 개별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단일 표상 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텍스트, 특히 인쇄물과 같이 융통성이 없는 매체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막이 없는 오디오 트랙을 이해하는 것을 힘들어 하는 사람도 있다. 아울러 어떤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지식을 제공하거나 어휘와 기호의 뜻을 명료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학습과정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장벽은 단어나 기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휘와 기호의 뜻을 알려주고 글의 짜임새와 구조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표현의 원리는 ‘어떻게 모든 학습자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학습은 정보 습득 이외에 자신이 학습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와도 관련이 있다. 학습자가 학습과제를 대하는 방식과 자신이 이해한 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각 개인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학습한 내용을 표현할 때 글로 쓰거나 구술로 발표할 것을 요구하지만, 학생들이 학습내용을 표현할 때 영상이나 그림, 춤구 등과 같은 신체적 표현, 글쓰기 등 행동과 표현에 관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과제를 시작할 때 조언과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과제를 완료하기 위한 전략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배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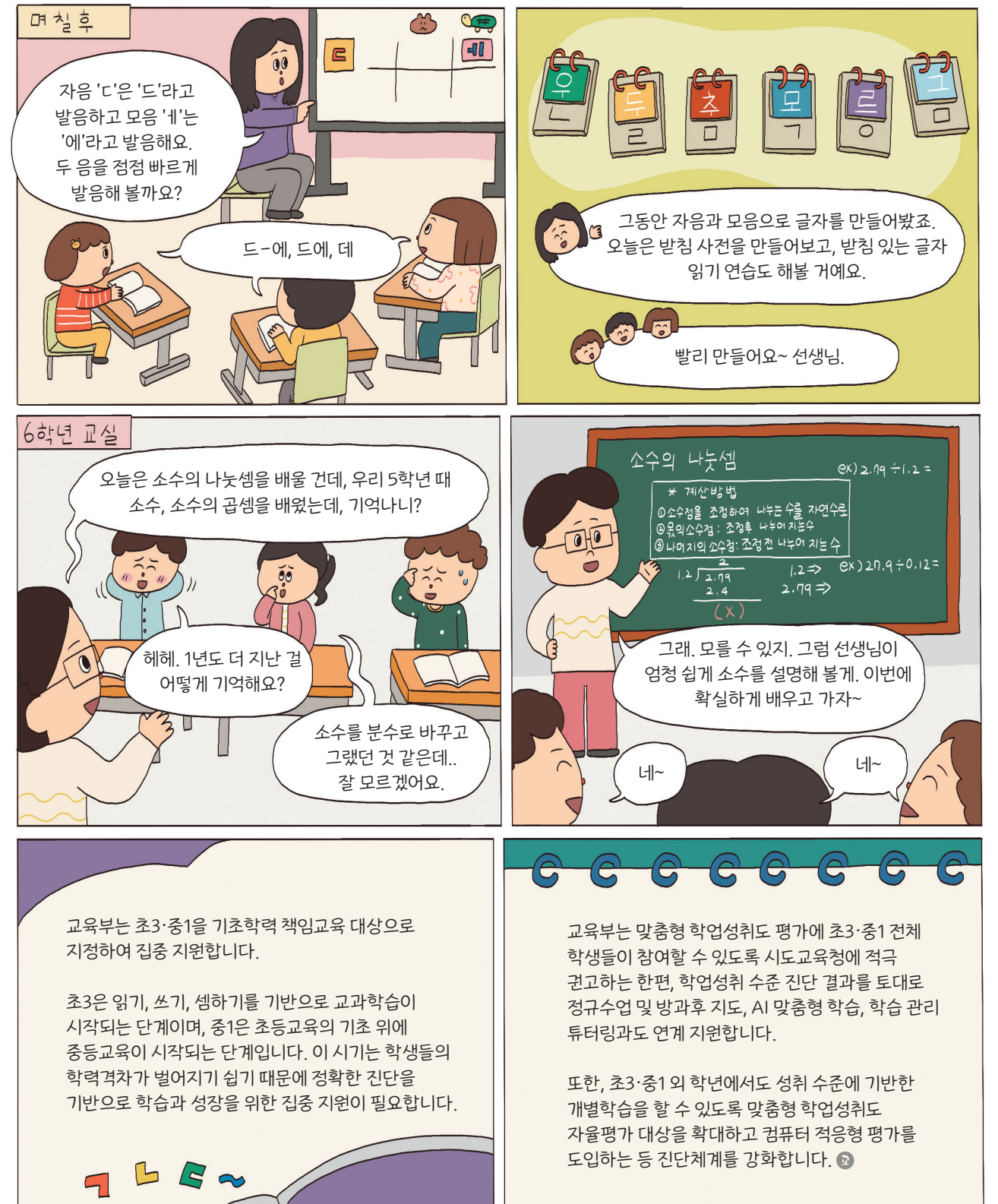
이상의 세 가지 원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의 원리인데 학습의 정서적 측면인 학습동기와 목적의식이 학생의 학습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잠들어 있는 교실 장면은 학습동기를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이 배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배움이 왜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었을 때 학습동기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교사가 학생의 관심과 흥미, 이전의 경험 등 삶의 맥락과 배

움을 연결시켜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교사는 지식과 정보의 전달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생의 삶에서 이 배움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줄 수 있는 맥락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생 개개인에 대한 섬세한 추적과 정서적 교감 및 소통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욕구와 학습목표를 연결시켜주고 학습자 자신의 수준보다 약간 높은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등 학생 개개인의 정서와 학습참여에 대한 수준과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학습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할 점은 보편적 학습설계 수업을 비롯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업이 실현 가능하고 적용 가능하려면 교육을 경쟁의 맥락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 배움의 출발선이 다름을 인정해야 하고, 모든 아이들에게 같은 학습내용, 같은 학습방법, 같은 학습속도를 요구하고 가르치는 기계적인 평등이 교육의 형평성과 평등의 구현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언뜻 보면 보편적 학습설계 수업이 차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보편성이 ‘획일적(One-Size-Fits-All)’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편적 학습설계의 교육패러다임은 오히려 보편성과 형평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개인차를 갖는 모든 학습자가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동일한 내용에 대해 동등하고 공정하게 접근하고 학습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편적 학습설계 수업을 비롯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교육현장에 착근하기 위해서 성장중심평가 안착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②

² 골디락스 법칙은 도전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만 어려울 때 동기는 최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여키스-도슨 법칙(Yerkes-Dodson Law)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의 현재 능력에서 대략 4퍼센트 넘어가는 일을 할 때 몰입상태에 돌입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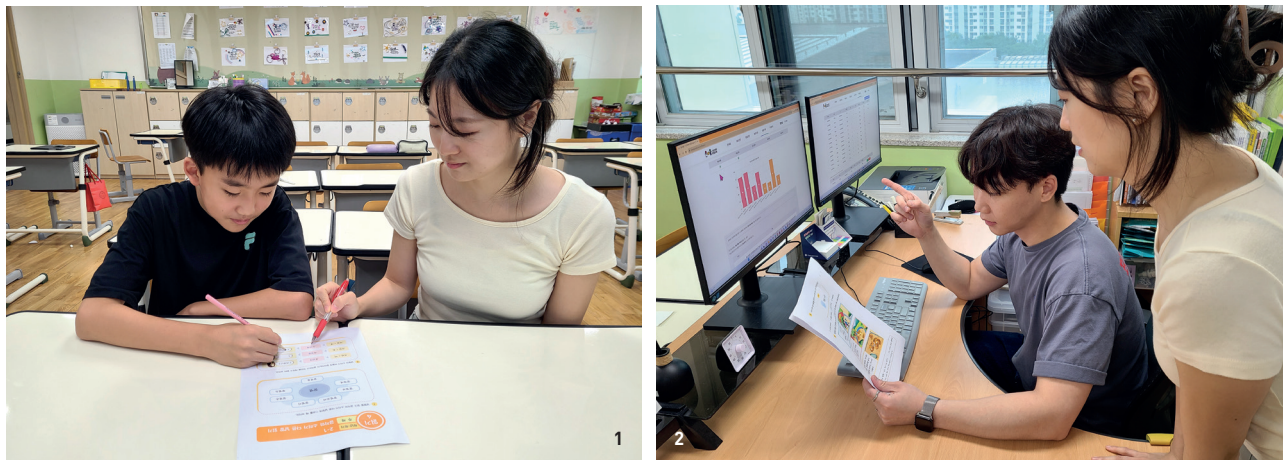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실시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한글 해득-기초학력-학습부진-문해력 다 잡은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프로그램 ‘온(On)시스템’

충청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을 보장하고,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프로그램인 ‘온(On)시스템’을 개발했다. ‘온시스템’은 한글 해득을 지원하는 ‘온한글’,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온채움’, 문해력 향상을 지원하는 ‘온생각’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결손 문제와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2022.3.25.)’ 제정 등으로 학교의 기초학력 책무성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충청남도교육청(이하 충남교육청)에서 관내 학생들의 학습부진 원인분석, 학습수준 진단에 따른 맞춤형 교육, 체계적인 학습이력관리를 제공해 주는 ‘온(On)시스템’을 개발했다.

출발선이 평등한 배움과 성장을 위한 ‘온(On)시스템’

‘온시스템’은 모든 학생의 기초·기본학력을 보

장해 출발선이 평등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2년 3월부터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50명으로 구성된 사업추진지원단을 만들고 기초학력 진단·보정도구의 개발과 검증, 시스템 로직 설계, 종합지원이력관리 방안모색 등 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과정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 한글 해득, 기초학력, 문해력 향상 등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개발하면서 학생 맞춤형 진단/학습지원/성장이력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온한글’, ‘온채움’, ‘온생각’이다.

현재 ‘온한글’은 106개, ‘온채움’은 414개 총

‘온(On)시스템’은 모든 학생의 기초·기본학력을 보장해 출발선이 평등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520개 중점학급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10월부터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의 한글 미해득 진단검사에서 ‘온한글’이 사용될 예정이다.

한글 해득은 ‘온한글’, 학습수준·학습저해요인 진단은 ‘온채움’

충남교육청에서 개발한 ‘온한글’은 한글 미해득 수준을 진단하고 한글 해득이 느린 학습자에게 맞춤형 한글교육을 지원하는 한글 해득 시스템이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연간 3회 진단 중심으로 진행되던 기존의 한글 미해득 진단검사를 대폭 개선하여 한글 미해득으로 인해 학습 부진에 빠지는 학생이 없도록 한글 해득 수준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고, 한글 해득 수준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유형별 분석 결과를 제공해 준다. 한글 해득이 느린 학생에게는 맞춤형 보정자료를 자동으로 연결·지원하도록 해 한글 해득 진단 및 종합지원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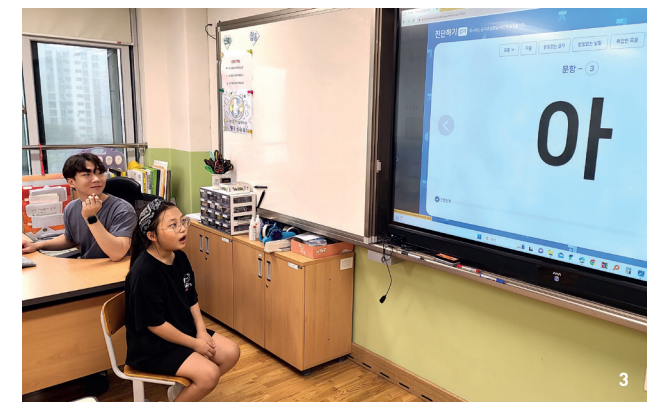
한글교육중점학급에서 시범적으로 ‘온한글’ 보정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지도했다는 오산초 김보해 교사는 “실제로 사용해 보니 정말 편리했다. 클릭 몇 번으로 학생 개인별 개별화 교육계획을 세울 수 있고, 진단영역별 학생 오류 반응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다채로운 보정자료 역시 매력적이었다. ‘온한글’이 제공하는 꼼꼼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들은 한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자기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기본적인 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용 소감을 밝혔다.

‘온한글’이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한글 해득에 주안점을 뒀다면 ‘온채움’은 기초학력 향상에 집중한 프로그램이다. ‘온채움’은 학생들의 학습수준 진단과 더불어 학습 부진을 유발하는 인지·정서·행동적 원인까지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문제가 되는 학습 부진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조절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온채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습수준을 진단한 뒤 해당 학년보다 부족한 학습수준을 가진 학생이나 교과목에 따라 다른 학습수준을 가진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인데 국어의 경우 4학년의 학습수준을 진단받았다면 교사가 방과후나 개별학습,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등으로 부족

- 1 ‘온채움’ 활용 학습지도
- 2 ‘온채움’ 보정학습 지도 협의
- 3 ‘온한글’ 읽기진단



‘온채움’ 진단결과지 한 장으로 학생에 대한 학습적·정서적 통합지원이 학교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진단은 정밀하게, 절차는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했던 부분을 보강해 줄 수 있도록 보충자료를 제공하거나 지도해 주는 방식이다. 학습수준 판단 방식은 교과목에 따라 다른데 국어·수학 과목은 담임교사의 관찰과 평가에 따라, 영어·사회·과학 과목은 교사의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교사의 응답과 학생의 응답을 모두 입력해서 학생의 학습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학습수준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제공해 개인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프로그램을 고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온채움’은 학습저해요인 진단을 필수적으로 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지·정서·행동적 어려움, 교우관계나 담임교사와의 관계에서 문제, 가정 내 어려움 등 학생이 겪고 있는 학습저해요인을 종합적으로 검사해서 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되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례로 A학생이 ‘온채움’ 학습저해요인 진단검사를 받은 후 결과지에 주의력결핍, 언어적 문제, 정신의학과 치료 요망 등의 내용이 표기되어 나오면 기초학력보장법에 근거하여 모든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에서 회의를 거쳐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센터나 위(Wee)센터에 지원을 요청한다. 또는, 관련된 외부기관과 연결해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포함한 의료비용을 학교 예산으로 지



45 지난 8월 28일 천안에서 열린 온시스템 시연회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들이 시스템 개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원해 주도록 하고 있다. 만약 학습저해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연계기관이 외부에 없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의뢰해서 해당 학생을 돕기 위한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기구에서 해당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줬다.

종합하면 ‘온채움’ 진단결과지 한 장으로 학생에 대한 학습적·정서적 통합지원이 학교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진단은 정밀하게, 절차는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부적초 김다혜 교사는 “올해 6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우리 반에 학습 부진이 심각한 학생이 있었다.

‘온채움’으로 진단해 보니 수학은 3학년 수준, 학습저해요인은 3가지나 나왔다. 6학년 수학 내용을 배울 때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이 학생의 학습 출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학습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기뻐다.”라면서 이제는 힘들었던 향상도 평가를 형식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온채움’ 시스템 내에서만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하대와 사고도구어 1,387개 추출

마지막으로 교과서 기반의 사고도구어를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시스템 ‘온생각’도 눈여겨볼 만하다. 여기서 사고도구어란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단어를 뜻한다.

이를 위해 충남교육청은 국내 사고도구어 분야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신명선 교수팀과 협력하여 초중등 교과서 총 361권을 분석, 사고도구어 1,387개를 추출했다. 1,387개의 사고도구어는 어휘의 사용빈도와 난이도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어휘를 익힐 수 있는 학습자료도 만들었다. 사고도구어 학습자료는 올해 안에 관내 모든 학교에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온생각’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신 교수는 “2023년 2월부터 6월까지 교과서 기반 사고도구어 추출을 위해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361권의 교과서를 분석해서 266만 5,037개의 어절과 37만 6,995개의 단어를 도출하고 여기서 사고도구어 1,387개를 추출했다. 학생들의 교과서 읽기능력 신장에 도움을 주고자 어휘 목록 선정, 사고도구어의 위계화, 학년별 적절성 등에 특별히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면서 충남교육청은 학습자 중심의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프로그램인 ‘온시스템’을 통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참 학력을 갖춘 미래인재로 키워가겠다는 계획이다. ❷

Interview

“진단결과지 한 장으로 인지·학습·정서적 통합지원 가능”

인정남 연구사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Q 학부모를 위한 온(On)시스템 활용팁이 있다면?
‘온한글’에서 진단 후 제공되는 보장자료는 학습지, 음성, 영상자료까지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게 특징이다. 학교에서 학습지를 뽑아서 가정으로 보내주면 가정에서 QR코드를 활용해 음성이나 영상자료로 확인해볼 수 있다. 학부모들이 가정에서도 학교와 연계하여 활용한다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Q 온시스템에 대한 현장 교사·학생·학부모의 반응은?
현장에선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기존 진단도구로 진단할 때는 학생의 결과표를 보고 교사가 판단해서 학생에게 맞는 보충자료를 개별적으로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런데 ‘온시스템’은 결과지와 함께 개인 맞춤형 보장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업무경감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또 학생들도 보장자료를 보면서 더 재미있게 공부했다는 의견과 학부모들 역시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 및 보충해줘서 만족해한다는 의견을 전해 들었다.

Q 프로그램 관련 앞으로의 계획은?
‘온시스템’이 현장에 안착한 뒤에는 시스템 운영·관리, 학습지원 담당교사 연수,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온생각’에서 추출한 사고도구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앱(APP) 개발도 추진 중이다. 1,387개 어휘의 뜻과 예문 등을 통해 학생들이 손쉽게 사고도구어를 찾고 익힐 수 있도록 연내에 개발을 완료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어린 미적 인간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진화를 위해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내가 '내켜서' 하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



탈(脫)자연화하는 아이들

“옥스퍼드 주니어 사전에서 자연과 관련된 단어들이 제외되고 있다.” 영국 배우 사이먼 맥버니가 온라인으로 진행된 어느 강연¹에서 한 말이다. 그는 문체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한 2020년 <국제예술교육실천가대회>에서 이렇게 전하며 아이들의 삶에서 자연이 점점 단절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자연과 관련된 단어들이 더 이상 서구 사회 어린이들의 경험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아동기의 탈자연화 현상은 비단 서구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왜 아동기의 탈자연화 현상이 문제되는가. 아이들이 경험의 소멸을 겪게 되면서 자연에서 생생한 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디어가 재현하는 ‘편집된’ 야생 프로그램들을 소비하며 대리만족해할 따름이지, 실제의 세계를 향해 좀처럼 발걸음을 떼지 않는다. 누군가는 아이들에게 미디어는 ‘초강력 또래’(Super Peer)가 되었다고까지 말한다. 아이들이 온갖 미디어로 인해 자연 상태에서 삶에 필요한 ‘삶의 기술’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는 이치이다. 초등학교들이 문자로는 시험공부하고, 세상 보기는 영상으로 보며, 네이버 지식인 대신에 유튜브를 검색엔진으로 이용하는 시대가 된 것을 보라. 갈수록 아이들의 내면이 ‘자연’이 없는 빈공간처럼 변한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나만의 억측은 아닐 것이다. ‘자연 없는 문화는 없다’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이들의 탈자연화 현상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자연의 역습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며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문화예술교육은 나와 우리 안에 내재된 ‘내면의 야성’(Inner

¹ 사이먼 맥버니 강연 <예술가와 마주하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서>, ITAC5 개막식 기조 발제 <https://www.youtube.com/watch?v=jvWTVtus35Y>(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유튜브 2020. 11. 11.)

Wildness)’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안학교인 알바니 프리스쿨(Free School)에서 40년 넘게 활동해온 교육자 크리스 메리코글리아노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면의 야생이라는 불꽃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내면의 야생을 갖춘 아이들은 서로 배우며 성장할 줄 아는 아이들이다.

문제는 중독 현상이다.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집, 땅, 차, 돈에 ‘몰빵’하려는 것처럼, 지금 여기 어린이·청소년들 또한 자본 중독과 소비 중독의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플랫폼 소비에 집착하며 힙합, 쿨함, ‘별점’과 ‘좋아요’에 감정이 과부하된 라이프스타일은 지금 여기 대한민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일상이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믿음과 생활양식이 아이들의 일상과 내면을 압도해버린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금지(矜持)’의 마음과 태도를 갖기란 쉽지 않다. 나에 대한 금지란 내면의 야생성이 없고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우울증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급증했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우울감 경험률은 2015년 23.6%, 2017년 25.1%, 2022년 28.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희망’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가르치는 손’을 감추는 문화예술교육

어린이와 십 대 아이들을 어린 시민 또는 어린 미적 인간으로 길러 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서의 사막 상태가 실재하는 사막을 만들어 낸다.”라고 한 정신분석가 빌헬름 라이히의 연구 결과는 좋은 참고가 된다. 생명 에너지의 성질을 연구한 라이히는 정서적 사막의 뿌리가 갓난아기에게 주는 손상, 즉 ‘출산의 산업화’에 내장되어 있다고 주저 없이 말한다. 그는 “갓난아기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인간의 주의를 사악한 정치에서 돌려 아이에게 향하게 하자.”라고 촉구한다. 문화의 핵심 요소는 후세대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엔데믹 시대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지식과 문화를 전달해야 할지 선택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 양양군 조산초등학교 탁동철 선생이 언급한 ‘가르치는 손을 감추는 교육’은 중요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탁동철 선생은 아이들에게 뭘 안 가르치고, 뭘 안 배우게 하자고 말한다. 그래야 아이들의 ‘야생성’이 살아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에 긴 시간이 요구되는 등 여러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지만, 프로그램의 상투성을 어떻게 넘어서지 고민해야 한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그동안 너무나 자주 기능 위주의 교육에 빠져 있었다. 탁 선생은 “아이들은 자기 일이면 열심히 하고, 남이 시키는 일은 뒤로 빼려 하는 건 당연하다. 아이가 하려는 일을 어른이

결에서 도울 뿐이라는 태도는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²

위 언급은 엔데믹 시대 학교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교육·활동은 ‘하던 대로’ 하려는 관성의 덩어리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창의, 창의를 말하지만 정작 창의력이 필요한 대상은 프로그램 운영자일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진화를 위해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내가 ‘내켜서’ 하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 어떻게 창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른의 개입을 최소화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다. 강원도 탄광 마을에서 아이들의 벗을 자처한 동시 작가 임길택 선생님(1952-1997)은 동시 ‘나 혼자 자라겠어요’에서 ‘길러지는 것은 신비하지 않아요’라고 썼다. 다시 말해 소, 돼지, 염소, 닭처럼 ‘길러지는 것’은 신비하지 않지만, ‘다람쥐’나 ‘하늘의 새’는 바라볼수록 신기하다고 시의 화자는 토로한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도 나를/ 기르지 못하게 하겠어요/ 나는 나 혼자 자라겠어요’라고 썼다. 학생의 자기 주체성과 무엇이 ‘좋은 삶’인가에 대한 지향을 풀이한 것으로 위 시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의력과 내면의 야생성은 고된 숙련의 노동 시간을 요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이들이 흠장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큰 아이들이라면 예술가 또는 예술교육 실천가와 함께 ‘삽질’을 해야 한다. ‘흙’을 의미하는 라틴어 ‘후무스(Humus)’라는 말이 ‘겸손’을 뜻하는 ‘휴밀리티(Humility)’와 어원이 같다는 점은 그래서 예사롭지 않다. 어쩌면 크리스 메리코글리아노가 강조한 생생한 배움이란 그런 삽질 같은 노동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어떤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일련의 창의적인 교육활동 과정에서 어린 시민이 재탄생하고, 어린 미적 인간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해 마시라. 야생성이란 우리가 본래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외부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자율적 환경을 만들어 줄 때 내 안의 야성(성)을 끌어낼 수 있다. 아이들 왼쪽 가슴에 있는 ‘호기심’을 살려 주어야 한다. 문화의 힘과 예술의 가치는 내 안의, 우리 안의 상투성을 부수는 힘을 지닌다. 아이들은 특히 ‘실패’하는 경험을 통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이처럼 ‘손의 부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활동이 중요하다. 학교 안팎의 교사와 현장 전문가들이 문화예술교육의 진화를 생각하며 특정 ‘사례’와 더불어 ‘고민’을 함께 공유했으면 한다. 지난 6월말 교육부 차원에서도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예술교육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예술강사를 비롯해 학교 밖 지역 전문가들과 교육지원청이 지원체계를 잘 구축하고 재미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점은 말할 나위 없다.

² 탁동철·고영직 대담, 「아이를 보아주고 인정하는 것이 먼저다」, 《아르떼365》(2019. 3. 25.)

일련의 창의적인 교육활동 과정에서 어린 시민이 재탄생하고, 어린 미적 인간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삶을 위한 리터러시를 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핵심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갈등과 딜레마를 조정하며, 책임의식을 갖춘 ‘변혁적 역량’을 강조한 점이다. 변혁적 역량에서 중요한 가치가 협력(Coagency)이라는 점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 교육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에서도 ‘학습 나침반(Compass)’이라는 비전이 중요해졌다.

여기서 말하는 학습 나침반이라는 비전은 다른 무엇이 아니다. 나는 삶을 위한 리터러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교육부 등 여러 통계자료에서 학생 행복감이 하락했다는 진단은 위험신호이다. 특히 우울감 경험률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이 코로나19 이후 재증가하는 추세는 매우 우려스럽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개별화된 맞춤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학습 나침반이란 결국 학생 스스로 좋은 삶을 향해 갈 수 있는 방향타라는 점에서 ‘삶을 위한 리터러시’가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키워줘야 할 역량, 삶의 토대가 되는 지적·정서적·사회적 역량이 무엇이나에 대해 지금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험을 위한 읽기’에서 ‘읽기를 돕는 시험’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말이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갖는 의미는 그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자기관리 능력을 강조하는 역량(Competency)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아마티아 센과 마사 누스바움이 제안한 역량(Capability)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학교는 삶을 위한 리터러시의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어떻게 변해야 하고, 학교 안과 밖의 전문가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질문하고 실천해야 한다. 아이들이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삶을 위한 리터러시를 생생하게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직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어린 미적 인간이 탄생하고 있다. ②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 개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혁신 생태계 조성



1 전 세계 교육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교육혁신의 현재를 짚어보고 교육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다 함께 뜻과 지식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을 통해 전 세계 교육 전문가들과 디지털 교육에 대해 공유하며, 민·관·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교육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혁신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한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GEIS; Global Education and Innovation Summit)’이 지난 9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서밋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및 유럽 주요국 석학, 각국 장·차관, 교육 분야 전문가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교육혁신의 현재

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함께 공유했다.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가능하도록 뜻 모아야”

안드레아스 쉘라이허 OECD 교육기술 국장이 첫 번째 기조강연을, 사라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 겸 교육부 장관이 그다음 강연을 했고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서밋 토크가 진행됐다. 각 세션은 △교육, 혁신, 생태계 △혁신과 고등교육 △기술과 혁신 △혁신 기술의 학교 현장에의 적용을 주제로 전 세계의 다양한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교육혁신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모

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다 함께 뜻과 지식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디지털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교육이 급격히 발전한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라며 “이제는 그동안의 입시 위주 교육을 벗어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이루어 내기 위해 협력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김진표 국회의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환영사와 축사를 전했고, 고든 브라운 UN 교육특사,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의장,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 등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해오는 등 GEIS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기조 강연을 맡은 안드레아스 쉘라이허 OECD 교육기술 국장은 “기술의 발달로 과거와 달리 교육과 시장, 학교와 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유기적인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전제하며 “이처럼 상호 협력 기반의 생태계 안에서 기술은 학생과 교수를 압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쉘라이허 국장은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 수업, 가상현실을 통한 몰입형 학습환경을 구축해 낼 수 있게 되었다.”라며 “챗GPT 등 AI모델이 어떤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어떤 틀이든 어떻게 활용할 것 인가가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개별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는 디지털 세상에서 사실과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디지털 항해가 가능한 디지털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 공교육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과 관료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두 번째 강연자인 사라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혁신: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격차 해소’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이어갔다.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우리 현실에서 이미 AI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 발달로 인한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이뤄질 수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교육에서 기술이 중요해짐에 따라 비판적 사고, 협업, 창의성은 더 중요해졌다.”라고 말하며 “디지털 기술이 학생에게 미치는 효과는 최종사용자인 학생과 선생님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표준·규범 체계 확립… 디지털 교육격차 극복

이어진 제1세션은 장관 서밋으로 급격한 변화에 직면한 세계 각국의 교육 현실과 정책지원을 통한 발전을 다루었다. 엘리자베스 킹 브루킹스 선임연구위원(前 세계은행 부총재)의 주재 아래 이주호 부총리, 가니 베이셈바 예프 카자흐스탄 교육부 장관, 간바야르 간볼드 몽골 교육과학부 차관, 슈크랏 야쿠코브 우즈베키스탄 고등교육개발연구원장이 함께 논의했다.

이들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이후에 교육의 디지털화



2 이주호 부총리가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가 급속하게 이루어졌으며 디지털 교육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마련하고 디지털 표준 및 규범과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가와 지역 간 디지털 교육의 차이를 극복하고 글로벌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디지털 교육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부가 교사와 함께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2세션 은 대학 세션으로 폴 라드 UN 사회개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김우승 한국공학 교육인증원장, 켄 로스 미네르바 대학 부총장, 데일 존슨 아리조나주립대학교 디지털혁신연구소장, 벤 쏘터 Quacquarelli Symonds(QS) 부대표, 보렌 샤크룬 유네스코(UNESCO) 정책·평생학습 국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교수법에 적응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데일 존슨 소장은 “현재 50% 이상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대학들의 발 빠른 혁신만이 살길”이라고 말했다.

제3세션 은 기업 세션으로 교육 분야 혁신에 있어 그 역할이 커지고 있는 민간 기업과 국제기구의 책임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기술이 교육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래리 넬슨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총괄 부사장이 좌장을 맡고 윤동식 KT 클라우드 대표, 이수인 에누마코리아 대표, 핑춘 미아오 유네스코(UNESCO) AI·기술교육 분야 최고책임자, 에비 월샤 브시키 마인드셋(MindCET)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이전에는 기술의 발달이 교실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었다면 AI 기술은 그 틀을 없앤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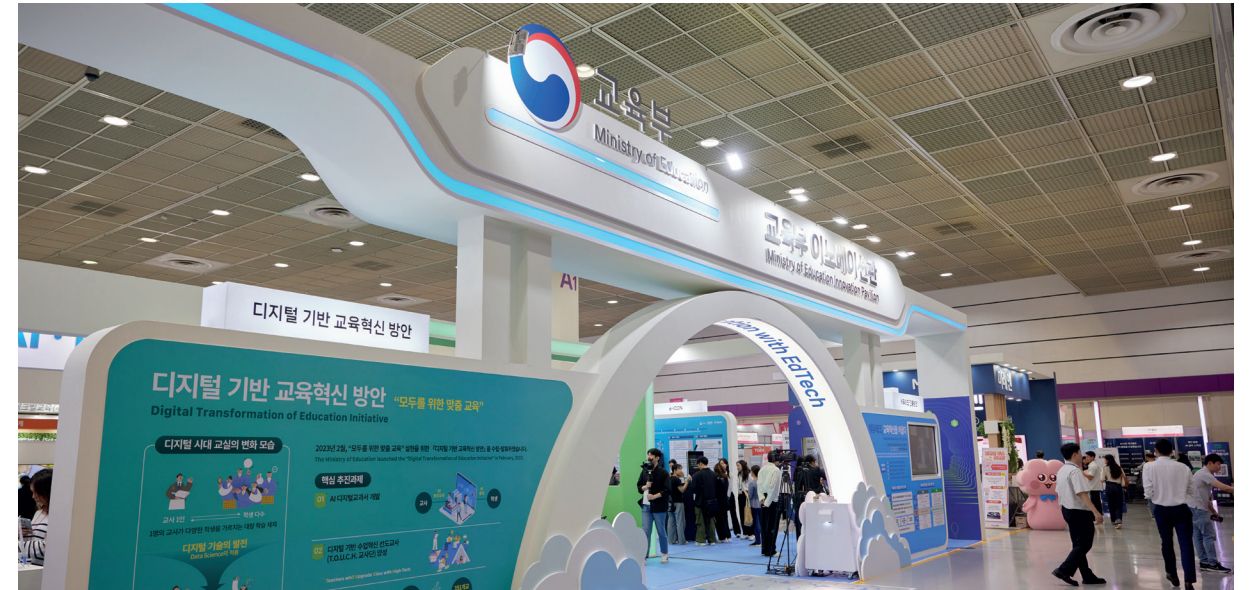
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술의 혁신이 개인과 국가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수인 대표는 배움이 어려운 지역과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으로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의 의미를 되짚었다. 핑춘 미아오 최고 책임자는 AI 기술이 교사와 학생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4세션 은 전문가 세션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혁신 기술 적용으로 인한 변화와 그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찰스 노스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GPE) 부대표가 토론을 이끌고 크리스찬 에이도 세계은행 아시아태평양 교육국장, 수지 오 前 LA 교육특구 영어교육 장학관 및 공립학교장, 아니세토 오르베타 필리핀 개발연구소장, 엠마뉴엘 지메네즈 아시아개발은행(ADB) 평가국장 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학교 현장에서 기술의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과 인프라 구축이 함께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 지원 등 정부의 의지와 교실 내 교사의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엠마뉴엘 지메네즈 국장은 한국의 디지털 교육 추진 사례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GEIS)에 참석한 연사 다수는 GEIS가 디지털 시대에 세계 각국이 직면한 교육의 도전과 과제를 공유하고,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의 한국의 경험 및 국제사회의 협력 노력을 함께 결집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교육 정상과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GEIS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교육혁신 이끌다



이날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은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주최한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와 연계해 진행됐다.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는 ‘에듀테크, 교육혁신을 이끌다’를 주제로 지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 A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페어는 교육부 이노베이션관, 서울특별시교육청 AI·디지털교육 홍보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형 R&D 체험관 등 정부정책 홍보관과 AI 디지털 콘텐츠, 코딩·로봇 교육, 콘텐츠·저작권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에듀테크 기업 전시관으로 구성되었다. 교육부 이노베이션관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소개와 함께,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이끌 터치 교사단의 수업 시연도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미래형 R&D 체험관’에서는 메타버스 학교 체험, 인공지능을 활용한 K-POP 댄스 자세 평가, 유아동 AR(증강현실) 학습 도구 등 R&D 우수 제품을 접해 볼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서울시교육청 홍보관에서는 AI를 활용해서 만든 다양한 학생 작품도 만나볼 수 있었다.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팩토리, 놀이동산 모형을 전시한 독산고등학교는 인공지능 선도학교이다. 부스

를 지키던 최준영(3학년) 학생은 “아직은 관람객들에게 설명하는 게 어색하지만, 개발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시연하던 송의여자고등학교 최동욱 교사는 “최근에 AI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서 AI 융합교육 연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전했다.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 주요 적용 기술인 AI,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체험할 수 있는 DXE(디엑스이)전시관도 눈길을 끌었다. 충주 충일중학교 전혜령 교장은 “중등교장단에서 함께 왔는데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학습 도구들도 살펴보고 AI 교과서를 비교 분석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미래엔 김인태 선임은 “발전된 콘텐츠와 AI 교과서를 교사들에게 알릴 좋은 기회인 것 같다. 다른 업체와 비교해 보면서 우리만의 보완점을 찾을 수 있는 것도 기회인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컨퍼런스, 에듀테크 학술 세미나, AI 교육 운영 사례 나눔 등 다양한 학술회도 진행했다. ②

조향사는 ‘향을 만드는 사람’이다. 여러 향료를 섞어 새로운 향을 만들고, 제품에 향을 덧입히는 향 전문가다. 이전까지만 해도 화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화장품업계, 혹은 식품회사에서 일하면서 향 전문가로서 활동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센트위키 김혜은 대표처럼 취미생활을 뛰어넘어 제2의 새로운 직업으로 조향사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의 진입도 늘어나고 있다.

조향사 | 센트위키 김혜은 대표

“상상 속 향기를 만들어 내는 매력에 푹 빠졌죠”

“이 세상의 모든 향기를 리뷰한다!”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향수하우스가 되는 것이 목표라는 센트위키 김혜은 대표가 조향사로서 내세우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다. 2018년 향수 브랜드 센트위키를 출시한 김 대표는 현재 향 관련 콘텐츠 제작자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이자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 다양한 향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500여 개가 넘는 향 콘텐츠를 업로드했다. 향수 영상 리뷰만 100개가 넘는다. “향수를 선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각오로 시작한 일이었다.

김 대표는 “향수는 타인의 취향을 의식하기보다는, 향을 느끼면서 내가

즐겁고, 행복해지면 그것이 바로 나와 가장 잘 어울리는 향수”라고 조언한다. ‘향 산업의 백과사전’ 같은 브랜드를 지향하고 있다는 김 대표는 “현재로서는 센트위키의 향 제품이 대중성보다는 소수만이 즐길 수 있는 독창성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귀띔한다. 다음은 조향사 김혜은 대표와의 일문일답.

하나, 조향사가 하는 일, 그리고 센트위키를 소개하면?

조향사는 ‘향을 만드는 사람’이다. 조향사의 업무는 화장품과 관련한 향장, 식품과 관련한 식향 등 두 영역으로 크게 구분한다. 센트위키는 조향사가 되고 나서 2018년 창업한 브랜드다. ‘향 산업의 백과사전’과 같은 브랜드가 되자는 의미로 짓게 되었다. 센트위키에서 향 제품을 선보이기 전에 먼저 시작한 사업영역이 향 관련 영상 콘텐츠 제작이었다. 가장 활발한 활동이 향수





'향 산업의 백과사전'과 같은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김혜은 대표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향수 리뷰다. 현재까지 100개가 넘는 향수 리뷰 영상을 업로드했다.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향수 관련 영상과 글을 쓰면 질문들이 줄줄이 올라온다. 조향사로서 속 시원하게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향수하우스 센트위키가 현재 추구하는 브랜드 전략은 니치향수(Niche Perfume)다. 니치는 '틈새'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니치아(Nicchia)'에서 유래한 말이다. 소수를 위한, 제한된 고객을 위해 최상의 원료로 만드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추구한다는 의미다.

둘, 조향사가 된 계기는?

‘새로운 취미생활에 도전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조향학원에 등록한 게 계

기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 관련 회사에 8년을 다녔었다. 조향을 배워보니 일상에서 향이 들어가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었다. 조향을 배우는 동안 조향 업계에서 내로라하는 선배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들었다. 그때 향을 다루는 데에 창의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듣곤 하였다. 마침 새로운 일에 대한 호기심도 발동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1인 회사를 차렸다. 기업이다 보니 수익 창출 모델에도 신경을 써야 했다. 초기에는 향 만드는 일보다는 향 관련 마케팅, 영상제작 등의 사업으로 돌파구를 모색했다. 2020년부터 향수하우스 센트위키 브랜드의 차량용 디퓨저, 핸드크림, 바디워시, 그리고 향수까지 출시하였다.

셋, 조향사로서의 활동은 어떤 과정을 거쳐 시작하게 되나?

아직 국내에 조향사 관련 국가자격증 정규코스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각 민간 교육원에서 교육 수료 후 별도의 자격검정시험을 거쳐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이 통용된다. 또 일반적으로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화장품이나 식품회사에서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향을 따로 공부하는 사례도 많다. 최근 들어서는 대학에서 화장품학이나 향료를 배울 수 있는 학과가 개설되기도 한다.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나로서는 학원에 다니면서 조향의 기초부터 하나씩 새로 배워나가야 했다.

넷, 조향사가 하는 일의 장점, 매력은?

조향사의 장점은 내가 상상하는 향기를 그대로 구현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향수 소비자들은 대개 본인이 사용하는 향수 정보를 잘 공개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향을 소유하고, 느끼고 싶어 공개를 꺼리는 경향도 존재한다. 조향사로 일하면서 내가 선호하는 향을 내 맘대로 만들고, 그 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어서 좋다.

다섯, 조향사로 일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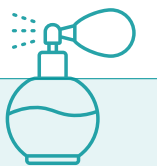
센트위키가 소규모 기업이다 보니 향료를 구매할 때 애로를 겪곤 한다. 수입 향료의 경우 유통에서 대기업이 우선이다. 자금력이 없는 소규모 회사로서는 뒤로 밀릴 때가 많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 향료의 경우 수량 제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 유통 경로 자체도 원료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인해 폐쇄적이기도 하다. 신생기업 센트위키로서는 쑥쑥 성장하여 필요한 향료를 제때 구매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는 게 목표다. 더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향수하우스로서 발돋움하는 것이다.

여섯, 국내 향기 산업의 생태계를 소개하면? 그리고 직업인으로서의 미래 전망은?

국내 향 산업은 앞으로 무한 성장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장품업계에서는 최근 스킨케어 부문에서 무향 제품도 선보이긴 한다. 향 알레르기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변화다. 하지만 향수와 디퓨저 등의 향 산업은 해마다 10~15%씩 성장해 왔다. 소수의 제한된 고객만을 위한 니치향수 시장도 형성되어 있다. 현재 국내 향 산업의 매출 규모는 약 5,000억 원 선으로 추산한다. 프랑스, 미국 등 글로벌 선도시장까지 가세하면 이보다 훨씬 더 커지는 조 단위 규모다. 향 제품의 대표인 향수를 정의하자면, 한 마디로 사치품 중 하나다. 그러하기에 고객들은 향수에 대한 기대와 욕망을 늘 꿈꾼다. 글로벌 향수 시장에서도 그렇고, 국내도 마찬가지다. 니치향수에서 기존의 명품 브랜드까지 새로운 향수 브랜드가 계속해서 탄생하는 이유다.

일곱, 조향사로서 향후 계획은?

향수 리뷰 영상으로 대백과사전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테면 향에 대한 정보를 표준화시키는 작업이다. 현재도 향수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구매자들을 위해 향수 자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브랜드별로 영상 리뷰를 하고 있다. 향의 느낌은 어떠한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 향수와 잘 어울리는 옷은 어떤 재질의 어떤 스타일인지, 이 향수로는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지 등등. 조향사로서 향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영상으로 담는다. 말 그대로 ‘향수 영상 위키피디아’다. 또 곧 향수와 관련한 책 출판도 계획 중이다. 조향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의 책을 쓰고 싶다. 조향사로서의 또 다른 꿈은 향수업계의 오프스카상으로 불리는 피피어워드(FiFi Awards)를 수상하는 것이다. ❷



TIP BOX

조향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미래 직업으로 조향사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먼저 다양한 감각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권하고 싶다. 향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다. 일례로 나프탈렌 향처럼 처음에 낯설고 친숙하지 않던 향도 희석하면 할수록 우아한 꽃향기를 낸다. 향을 느끼는 감각은 한 번 차단하다 보면, 그 기능이 저하되기도 한다. 맛을 느끼는 데에 빠져서는 안 되는 식향도 마찬가지다. 미래에 식향과 관련한 조향사를 꿈꾼다면 특히 보는 감각까지도 잘 익혀두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다.



10월 중하순경 문경새재에 단풍이 무르익는다.

마음을 비우며 걷는

문경새재 단풍 숲길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싶을 때가 있다. 길 잃을까, 돌부리에 넘어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숲길이면 좋겠다. 기왕이면 단풍빛도 고왔으면. 그래서 고른 곳이 문경새재 옛길이다. 새도 넘기 힘들었다던 그 험한 고갯길이 지금은 누구라도 걸을 수 있을 만큼 환해졌다. 옛길에 전해오는 옛이야기는 감칠맛 나는 양념 역할을 한다.

옛 선비들이 간절한 소망으로 건던 길

문경새재는 조선 태종 때 조성한 영남대로(한양~부산 동래)의 고갯길이다. 영남에 사는 선비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갈 때 영남대로를 이용했는데 문경새재, 추풍령, 죽령 중 한 고개를 선택하여 넘어야 했다. 선비들은 가장 험한 문경새재를 선호했다고 한다. 이유인즉, 소문에 추풍령은 추풍낙엽처럼 시험에 낙방하고, 죽령은 대나무처럼 죽죽 미끄러지고, 문경은 ‘좋은 소식을 듣는다’는 뜻을 지녀서라고. 황당한 소문에 기댔

정도로 과거급제가 간절했기 때문이라.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는 옛 선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문경새재는 도립공원으로 조성되어 전 구간이 평지에 가깝다. 바닥을 고르게 잘 다져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구간도 있다. 울창한 숲은 어느 계절에 걸어도 좋지만, 가을을 최고로 꼽는다.

문경새재를 지키는 세 개의 관문

문경새재 주차장에서 은행나무 가로수길을 1.3km 정도 걸어 들어가면 제1관문인 ‘주흘관’이 보인다. 영남에서 한양으로 갈 때 맨 처음 통과하는 관문이다. 성벽에 주흘관을 지은 석공들의 이름과 개축 연도를 새긴 기록이 남아있다.

문경새재가 조성될 당시에는 관문이 없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문경새재를 수월하게 넘어 한양을 함락한 사건 이후 약 100년에 걸쳐 제2관문 조곡관, 제3관문 조령관, 제1관문 조흘관을 차례로 지었다. 그런데 관문을 세운 뒤로는 문경새재를 넘는 외적이 없었으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되었다.

주흘관에서 조곡관으로 이어지는 약 3km 구간은 경사가 완만한 계곡 숲길이다. 계곡 양쪽에 늘어선 붉은 단풍나무와 계곡가 억새밭이 가을 정취를 더한다. 옛날 이 길에서 호랑이와 맞닥뜨리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길이 넓다.

돌탑에 쌓은 염원

숲이 깊어질수록 단풍빛도 짙어진다. 단풍 구경하느라 발걸음이 자꾸 느려진다. 출장 온 관리들의 숙식을 제공했던 조령원터, 신임 감사의 인수인계 장소인 교귀정, 봉수터 등의 유적을 구경하며 조곡관을 향해 천천히 걷는다.

조곡관 근처에는 조곡 약수터가 있는데, 겨울에도 얼지



1 문경새재 길가에 누군가의 소원을 담은 수많은 돌탑이 쌓여 있다.
2 문경새재 제2관문 조곡관 입구

않는다는 곳이다. 건느라 목이 말랐던 터라 두 바가지를 연거푸 마신다. 몇 날 며칠 험한 산길을 걸었던 옛사람들에게는 생명수 같은 존재였을 것 같다. 길가에 쌓아 놓은 크고 작은 돌탑에는 장원급제를 꿈꾸던 선비들, 호랑이를 만나지 않길 기원하는 사람들의 염원이 차곡차곡 쌓였다. 어른 키보다 큰 돌탑이 하나 있는데, 장원급제 소원을 들어준다는 책바위다. 집안에 수험생은 없으나 가족 건강을 기원하며 돌 하나를 살포시 올린다.

평지였던 길이 조곡관을 지나면서부터 문경새재 끝인 조령문까지 오르막길이다. 경사가 완만해 힘들진 않다. 문제는 조령관에서 조흘관으로 되돌아오는 차편이 없어 걸어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 왕복 4~5시간 걸리는 거리가 부담스럽다면 조곡관까지만 걸어도 단풍 구경하기에 충분하다. 단풍철에는



평일에도 걷는 사람이 많으니,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산책하는 게 여유롭다.

풍광 좋은 산성길, 고모산성과 토끼비리

옛길을 좋아한다면 문경 고모산성길과 토끼비리길도 추천한다. 이 길 역시 영남대로의 한 구간이다. 문경새재처럼 유명하진 않지만, 옛길 느낌이 많이 남아있다. 고모산성 주차장에서 서낭당과 과객이 하룻밤 묵어갔던 주막거리를 지나면 고모산성 진남문이 나온다.

고모산성은 5세기경 신라가 백제군을 막기 위해 오정산(810m)에 쌓은 산성인데, 꽤 가파르다. 돌계단이 진남문을 사이에 두고 양팔을 들어 만세하듯 하늘을 향해 뻗어 있다. 오르다 뒤돌아 보면 오정산 능선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잠깐 새 오르는 수고를 잊고 계속 오르게 된다.

고모산성을 한 바퀴 돌고, 진남문으로 되돌아와 토끼비리를 이어 걷는다. 토끼비리의 ‘비리’는 낭떠러지를 뜻하는 ‘벼루’의 사투리다. 고려 태조 왕건이 남쪽으로 진군할 때 토끼가 이 길을 알려줬다는 일화가 전해온다. 진남문에서 오정산으로 이어지는 벼랑의 경사면을 깎아 만든 돌벼랑길이라, 한 사람씩 걸어야 할 정도로 폭이 좁다. 수백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길을 걸었는지 바닥이 대리석처럼 반질반질해졌다. ②

문경새재 도립공원 정보

- 주소 경북 문경시 문경을 새재로 932
- 개방 시간 탐방로 상시 개방
- 입장료 무료
- 문의 0507-1321-0709

주시경과

제2의 한글 창제

서 울 송파구 잠실의 석촌호수 부근에 삼전도비라는 비석이 있다. 삼전도는 조선 시대에 석촌호수 일대를 이르던 말로, 병자호란 때 인조는 이곳에서 청 태종에게 항복했다. 삼전도비는 그때 청의 요구에 따라 태종의 공덕을 찬미하는 내용을 적어 넣은 비석이다. 청 태종은 조선을 정신적으로 무릎 꿇리기 위해 조선인의 손으로 비석을 세우고 비문을 작성할 것을 명했다. 그에 따라 충주에서 32톤의 화강석을 캐낸 뒤 한강을 통해 배로 실어 나르고, 장정 400여 명이 육지로 끌어서 옮겼다. 예문관 제학 이경석은 인조의 명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비문을 지었으나, 이로 인해 그의 집안은 대대손손 굴욕을 당해야 했다.

민족의 말과 글을 바로 세우다

정식 명칭이 ‘대청황제공덕비’인 삼전도비에는 만주문자, 몽골문자, 한문의 세 가지 문자로 비문이 새겨져 있다. 만주문자는 청을 세운 만주족의 만주어, 몽골문자는 몽골어를 표기하는 문자이다. 한문은 중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로, 앞의 두 문자와 더불어 청 황실의 공식 문자였다. 조선도 한문을 공식 문자로 사용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이미 우리말에 맞게 창제된 한글이 있었지만 삼전도비에는 새기지 않았다. 조선 백성에게 세 세연년 청에 복종하라는 뜻에서 만든 비석에 왜 조선 백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을 새기지 않았을까? 청 태종이 한글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일까? 아니면 조선의 엘리트들이 상용하는 한문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일까? 이유가 무엇이든 역설적이게도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자인 한글은 굴욕적인 삼전도비에 새겨지

는 운명을 피할 수 있었다.

삼전도비가 세워진 것은 세종이 한글, 즉 훈민정음을 창제한 지 거의 200년이 지난 때였다. 그런데도 조선의 사대부들은 유교 문명을 받들면서 그 문명의 소산인 한문을 숭상하고 훈민정음은 언문이라 부르며 천시했다. 삼전도비가 아니라도 조선의 공식 문서는 모두 한문으로 쓰였다. 우리말을 사용하면서도 우리말을 정확히 표기할 수 있는 훈민정음을 우습게 여겼다니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청에 그런 치욕을 당한 뒤에도 한글은 조선 왕조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할 지경에 가셔야 재평가되었다. 조정의 무능과 부패에 열강의 침탈이 이어지면서 망국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애국지사들은 나라를 부흥시킬 방법을 다방면으로 모색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민족의 말과 글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이를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지식인이 주시경(周時經, 1876~1914)이었다. 어릴 때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던 주시경은 쉬운 우리말과 한글을 놔두고 한문을 가르치는 현실에 회의를 느꼈다. 그는 1893년 배재학당에서 신학문을 배우면서 문명 강대국은 모두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이 한글 연구에 짧은 생애를 바치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밖에 없는 글, 한글

1896년 서재필이 창간한 『독립신문』에 참여하면서 주시경은 한글 연구를 본격화했다. 서재필은 일반민중과 부녀자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독립신문』을 한글 전용으로 발행하려 했고, 주시경은 이를 위해 우리

말 문법과 한글 표기법을 정비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수구파 정권의 탄압으로 『독립신문』이 폐간된 뒤에도 주시경은 『국어문법』을 간행하는 등 한글 연구의 끈을 놓지 않았다. 1906년에는 학생용 교재인 『대한국어문법』, 1908년에는 음운론을 정리한 『국어문전음학』, 1909년에는 초등 국어교과서인 『국문초학』을 저술했다. 말과 글의 독립을 통해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이룩하고자 했던 주시경은 종교마저도 기독교에서 민족 종교인 대종교로 개종하면서 애국심을 불태웠다.

주시경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1910년 한국은 일본에 국권을 빼앗겼다. 나라뿐 아니라 언어와 역사까지 통째로 없어질 위기에서 주시경은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언문, 가갸글 등으로 불리던 훈민정음에 으뜸가는 글, 하나밖에 없는 글이라는 뜻에서 ‘한글’이라는 멋진 이름을 선사한 사람도 주시경이었다. 그는 제2의 한글 창제로 불려 마땅한 업적을 세우고 38세라는 너무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희생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한국인이 과학적인 문자로 손꼽히는 한글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릴 날이 과연 올 수 있었을까? 한글 없는 한국인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주시경은 한국인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은인임이 틀림없다. ②

언문, 가갸글 등으로 불리던 훈민정음에 으뜸가는 글, 하나밖에 없는 글이라는 뜻에서 ‘한글’이라는 멋진 이름을 선사한 사람도 주시경이었다.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의 실제

나와 너, 우리의 소셜미디어



¹ 필자는 미디어리터러시 최초 인정교과서를 대표 집필하고 정규 과목으로 개설해 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리터러시교육 시리즈

(상)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의 개념과 핵심성취기준

(하)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의 실제

지난 호에 이어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업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소셜미디어는 사람들 간의 만남과 대화, 자기표현, 정보 공유, 사회참여에 이르기까지 세상과 만나고 소통하는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미디어가 되었다.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인지 소셜미디어 활용 수업에서 학생들의 집중도는 뛰어났으며, 당연하고 익숙한 소셜미디어를 낯설게 보는 과정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체적인 수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표. 소셜미디어 활용 미디어리터러시교육 차시지도안

차시	활동 제목	학습목표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	시수(분)
1	상황과 목적에 맞는 소셜미디어 선택	- 소셜미디어의 특징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 상황과 목적에 맞는 효과적인 소셜미디어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 내가 생각하는 소셜미디어란? - 소셜미디어의 특징 조사해 발표하기 - 소셜미디어의 이용현황과 용도 파악하기 - 상황과 목적에 맞는 소셜미디어 선택	2시수 (100분)
2	소셜미디어로 표현하고 소통하기	-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소통의 원칙을 알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한다.	- 소셜미디어 프로필로 자기표현 하기 -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관계 맺기와 문제상황 파악하기 -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소통의 원칙 만들고 캠페인 활동 실천하기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처방전 만들기	2시수 (100분)
3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책임과 권리, 그리고 사회참여	- 소셜미디어로 자기를 표현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소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들과 문제점들을 책임과 권리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를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 소셜미디어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과 권리 관련 이슈 파악하기 - 소통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수칙과 대응방법 모색하기(개인정보와 저작권 중심으로 활동진행) - 소셜미디어 시대의 시민역량과 사회참여 사례 파악하기 - 소셜미디어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2시수 (100분)

상황과 목적에 맞는 소셜미디어 선택하기

소셜미디어에 대한 본격적인 수업의 출발은 소셜미디어별 특징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모둠별 수업을 추천한다. 자신들이 자주 활용하는 소셜미디어를 하나 선정해 장점(Plus), 단점(Minus), 흥미로운 점(Interesting)을 분석해보도록 한다. PMI기법(Plus, Minus, Interesting method)을 활용한 소셜미디어별 특징 파악 수업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더불어 사용하려는 상황과 목적에 적합한 미디어인지, 나에게 잘 맞는 미디어인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체적 소셜미디어 선택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때 고려할 질문들

- 나는 정보 지향형, 관계 지향형 중 어디에 적합한가?
- 나는 개방형과 폐쇄형 소셜미디어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가?
- 내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어떤 상황인가?
- 나는 이 소셜미디어 활용법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 나와 소통할 사람은 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인가?
- 이 소셜미디어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소셜미디어로 자기를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기

두 번째 시간에는 소셜미디어를 주체적으로 선택해 자기를 표현하는 법, 소셜미디어를 통한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맺기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실천 방법을 활동과 캠페인 중심으로 공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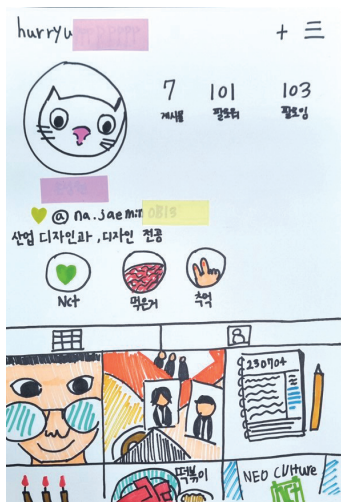
• 소셜미디어 프로필로 자기표현 하기

도입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소셜미디어 프로필 만들기를 하면서 자기만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타인과의 원활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기표현의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 소셜미디어의 프로필은 자신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나 상호 작용의 단서를 제공한다. 현재의 프로필을 그대로 옮기는 것도 좋지만 지혜로운 자기프로필을 가상으로 만들어 표현하는 것도 좋다.

•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관계 맺기와 문제상황 파악하기



견이 담긴 자기표현, 소외와 무시, 뒷말과 루머 생성 등은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소셜 미디어로 소통할 때 지켜야 할 우리들의 약속은?

- 길 때 끼고 빠질 때는 빠진다.
- 좋아요와 댓글 달기에 인색하지 않는다.
- 친구를 모독하는 글과 사진은 남기지 않는다.
- 건설적 비판은 괜찮지만, 깽아내리는 비난은 하지 않는다.
-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한다.
- 답장을 너무 늦게 하지 않는다.
- 예의를 지켜 말한다.
- 혼자만 말하지 말고 남한테도 말할 틈을 준다.
- 친구를 따돌리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 일곱 보고 못할 이야기는 소셜 미디어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 관심(격정)과 참견(간섭)을 구분한다.
- 소셜 미디어 특성에 맞게 글과 이미지, 동영상을 올린다.

토의가 더 필요한 항목들

- 지나친 자기 과시는 하지 않는다.
- 아는 사이가 아니라 친한 사이가 되도록 노력한다.

•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소통의 원칙 만들기

원활한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는 구성원이 속한 온라인 공동체의 관습과 암묵적 규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좋다. 또한 주어진 원칙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소통의 약속을 직접 만들어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소셜미디어로 소통할 때 지켜야 할 우리의 약속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한다.



• 캠페인 활동

토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 중 자신이 앞으로 실천할 내용을 배지로 만들어 가방에 달고 다니면서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함께 만든 약속을 개인 소셜미디어로 친구들과 공유하는 온라인 캠페인도 병행한다. 더불어 소셜미디어 프로필 사진을 배지 사진으로 바꿔서 일정 기간 게시하는 것도 좋다. 캠페인 활동이 끝난 다음 함께 모여서 캠페인 내용과 자신의 실천 내용에 대해 성찰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활동을 마무리한다.

소셜미디어 이용자로서 책임과 권리 인식 지니기

이어지는 수업에서는 소셜미디어로 자기를 표현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소통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이슈(알 권리, 잊힐 권리, 저작권, 개인정보, 사생활, 표현의 자유)들을 책임과 권리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수칙과 대응 방법을 모색하여 다양한 미디어 형태로 표현하게 한 다음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한다. 덧붙여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를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에 유념하고 어떤 자세와 태도를 지녀야 할지를 배우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소셜미디어에 대한 수업을 완성한다.

소셜미디어는 나와 타인, 그리고 세상을 이어 주는 끈이자 표현과 소통의 도구이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소셜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게 됨은 물론 표현과 소통, 그리고 참여의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이 학교 현장에 잘 뿌리내리길 소망한다. 12

한글날, 짧은 생각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조선 대부분 백성은 읽거나 쓰지 못했습니다. “우리말이 중국말과 달라 서로 잘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글 모르는 백성이 말하려는 것이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훈민정음은 획기적이고 따뜻한 창제 목적만큼이나 문자 자체로도 대단합니다. 훈민정음을 만든 원리, 사용법 등은 어떤 언어도 따라올 수 없다고 세계적으로 인정된 문자로 평가되지요.

오늘날 한글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1910년대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한글학자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이란 크다는 뜻으로, ‘큰글’을 의미합니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 훈민정음을 만든 과학적 원리,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신념 등으로 세상에 나와 빛을 보게 된 훈민정음은 여러 의미에서 ‘큰글’임이 확실하지요. 지금까지도 널리 활용되는 그 쓰임까지 문자로서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실록』 28년(1446년) 9월,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지다.’라고 한 근거로 조선어연구회는 9월의 마지막 날인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이라고 지정했습니다. 1940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훈민정음』 원본이 발견되면서,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정통 11년 9월 상한-세종 28년 9월’에 책으로 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9월 상순의 마지막 날인 9월 10일은 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 9일이 됩니다. 이후 한글날은 지금까지 10월 9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9일이 되면 쉽니다. 한글날은 한동안 법정공휴일의 지위를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06년부터는 꾸준히 국경일로 지정되어 여러 행사를 합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제가 읽고 쓰는 사람이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번 한글날에는 세종대왕에게 감사 인사를 올려야겠습니다.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적극 보호합니다

1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아요

-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해설서 등에 따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음
- ☑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처분되는 것을 제한



2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로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해요

교육지원청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신고내용 즉시 공유

교육청  7일 이내 의견 제출

조사·수사기관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



3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을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지원센터
1899-9876
forteacher.kedi.re.kr

사례
부산교육청

-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법률지원팀을 신설해 법률 지원
- ☑ 무고한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변호사 상담 및 선임
 -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법률 관련 법적 분쟁 소송 지원

4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심리 검사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교원치유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검사 가능



심리 상담 프로그램 제공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 프로그램 제공 및
정신건강 교직원군 교사에게 전문 상담 지원



심리 치료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연계하여 심층 치료 지원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www.moe.go.kr

